

김 향 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미술치료교육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방 영 주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미술치료교육

김 향 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방 영 주

인 준 서

방영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대처해야 할 그들 자신의 문화적·개인적 문제들과 심리적 외상(外傷) 문제의 치료에 관해 미술치료교육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한다. 오늘날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 분야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에게 위험천만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는 변화무쌍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시계속 톱니바퀴의 맞물림처럼 그들 자신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동시에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라나며, 종종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학교와 교육과정이라는 물리적인 틀 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응하며 졸업에 이르게 되지만 몇몇 청소년들은 그에 적응하지 못해 유리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조용한' 학생들도 주목한다. 폭력 등으로 드러나는 청소년 문제는 물론, 긍정적·적극적 사고 등의 결핍 또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과 같이 창조적인 활동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교과는 인간의 정서와 자아의 성장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다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미술교육은 지식위주로 편중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과 다른 방식인 비언어적이고 정서적이며 창조적인 방식을 제시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미술작업을 통하여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고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특히 미술의 치료적 속성은 선행 연구 결과 청소년문제에 유효할 것으로 주목하였다.

역사적으로 간단히 개관해 보면 미술교육은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능력향상을 목표로 한 인지적 훈련을 하는 기술적 접근을 유지해왔으며, 반대로 미술치료의 즉흥적 자아표현은 기술적 숙련보다는 직관적, 감정적 문제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자유 연상적 표현을 이끈다고 개별적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케인(Cane)과 로웬펠드(Lowenfeld) 같은 미술교육가들은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방법을 접목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두 선구자들은 치료적 미술교육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감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미술은 크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케인도 미술에서 상동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이미지의 투영, 기억과 내적 체험을 통한 표현 등을 중요시하며 아동 미술을

지도하였다. 특히, 미술표현의 주제로서 감정, 환상 등을 강조하고 인지적인 대상을 가급적 그리지 않는 표현법을 고안해 내었다. 아울러 격렬한 갈등과 강박감 속에 파묻혀서 외부의 자극이나 인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이 방법이 유효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헨리(Henley)는 치료적 미술교육자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이야기했다. 치료적 미술교육은 미술 제작과정의 치료적 장점을 인식하여 사용하는 미술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분석, 심리치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같은 분석적 지지를 대신하기 위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학생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형성해주며 미술행위를 통해 외부세계에 응답하며 진지하게 그들의 문제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이 다양한 청소년의 내면적 문제에 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논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절차 -----	3
II. 현대사회와 청소년문제 -----	5
1. 현대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 -----	5
2.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	8
3. 오늘날의 청소년문화 및 청소년 문제 -----	10
1) 청소년문화의 특징 -----	10
2) 청소년문제행동의 개념 및 범주 -----	12
3) 문제행동의 원인 -----	15
4) 청소년 문제 -----	19
III. 청소년문제와 미술치료 그리고 교육 -----	31
1. 대안으로서의 미술 -----	31
1) 우리몸과 조형활동 -----	32
2. 치료와 교육의 공존 -----	34
1) 미술치료의 개념 및 미술치료교육 -----	34
2) 장점 및 적용 -----	38
3. 치료 메커니즘 -----	41
1) 미술치료의 효과 -----	41
2) 개입 시기와 강도 -----	51
IV. 미술치료의 교육적 적용 -----	54
1. 정서순화를 위한 심리치료적 관점 -----	54
2. 자아개념형성과 자기표현 -----	58
3. 통합적 관점 -----	62
4. 교수방법적 관점 -----	63

V. 결론 및 제언	68
참고문헌	71
ABSTRACT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이 되기 전의 전환기(transitional period)로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이며 또한 혼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탠리 홀(Stanley Hall)은 청소년기를 ‘질풍과 노도의 시기’라고 했다. 이것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라도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문제행동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발달적, 가정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크든 작든 간에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문제행동의 규정기준은 시대적 차이,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가치, 행위자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유형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은 편리해지고 세계는 가까워졌지만 그 결과 인간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핵가족과 맞벌이로 인해 가족구성원간의 배려와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문제도 과거보다 우리사회에 더욱 만연하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에만 청소년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원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잘못된 청소년들을 어떻게 벌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적혀있고, 성서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얽혀있다고 쓰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과거보다는 오늘날에 있어 이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10여 년 전에 한 해 동안 1억 4천 4백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한다¹⁾. 세계의 빠른 흐름을 주도한다고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이제는 청소년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 문제행동은 양적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폭력화·집단화되고 있으며, 또한 과거 일부 청소년에 국한되었던 문제행동이 현재는 전체 청소년으로 보편화되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문제의 원인을 한두 가지만으로 결론짓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풍요와 발전이라는 사회의 이면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다.

1) Raley, 1995, 권두승·조아미 『청소년 세계의 이해』, 문음사, 1998, p. 재인용

가정생활이 붕괴되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부재, TV와 인터넷에서는 불건전, 부도덕을 조장하는 셀 수 없는 이미지들이 범람한다. 특히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은 환경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의 내적·외적인 환경변화를 겪으며 자기와 사회의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사회 현상에 대한 견해, 사고방식 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²⁾.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은 알맞은 시기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바른 인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미술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미술표현 및 감상활동을 통하여 기본적인 표현능력과 기술의 신장은 물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아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수용할 수 있게 되며 또한 협동작업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격 형성을 해 나가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 공존의 시대로서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간을 육성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보호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청소년 내에서 청소년문제의 실재를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거론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의 아픈 마음과 정신의 여하한 부분이라도 틀어짐 없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술교육의 또 하나의 정당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학자들로부터 그러한 필요성들이 강조되어 왔다. 슈타이너(R. Steiner)³⁾는 모든 건강한 인간이 자신의 삶의 과제를 찾고 그리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도 자신의 개인성이 삶의 과제를 찾고 요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2)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김영한, 이명진, 이승현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 III-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행정제도 환경, 외국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재인용

3)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인지학(Anthroposophie)을 수립·제창한 철학자, 교육사상가. 191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자유 발도르프학교를 창립했다. 예술교육의 중시, 수업의 예술적 형성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 방법론인 교육예술을 창안·실천하였다.

가능성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강의에서 그는 “어떤 어린이에게도 교육은 치료다. 교육은 소위 건강한 사람을 위한 치료인 것이고, 치료는 소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특수케이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매우 공감이가는 이 표현처럼 교육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마음과 몸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음에 본질적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항상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상처 입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미술이 어떤 형태로 다가가 마음의 치료를 꺾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만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문제로 발현되기 전에 개개인의 청소년에게 개인 내 심리적 외상에 해소와 승화로 작용할 수 있는 미술수업의 가능성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에 대하여 그 원인과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술치료적 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미술교육이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들과 조화하여 정서적으로 유효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들을 검토함으로써 치료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미술수업으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주요 방법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의 사회적 양상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질과 청소년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청소년 문제를 개념화하고 주요 문제들의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둘째,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 중 교육적 효과에 의해 변화 및 예방이 가능한 부면(部面)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미술이 어떻게 치료와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셋째,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의 개념 및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보고 미술치료 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다.

넷째, 치료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각 이론들을 적용 가능한 수업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심리진단의 도구로서의 미술치료기법, 투사법 등을 제외한다. 이 기법에 쓰이는 자극은 모호성, 불완전성, 다의성 등을 내포하므로 그 반응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와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적 목적을 띠고 있으므로 이미 심리치료 기법의 하나로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들의 제안은 제외한다.

둘째, 실제 학교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가설의 검증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II. 현대사회와 청소년문제

1. 현대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

왜 현대사회를 논하는가? 인간은 역사와 문화라는 환경에 영향 받고 적응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 존재에 대한 철학적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받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틀을 형성해 가는 시기이므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사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시기를 설명하는 용어들은 다양하다. ‘탈(脫)이데올로기 시대’, ‘다국적 자본주의 사회’ 외에도 정보와 정보 통신 기술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는 의미에서의 ‘정보화 사회’, 대중매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중매체사회’, 그리고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영상의 강력한 영향을 강조하는 ‘영상문화 시대’ 등의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압축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섞이는 ‘탈 역사성의 사회’, 사회의 모든 영역이 빈번한 상호 교류와 발달된 의사소통 수단 때문에 경계가 모호해 지는 ‘무경계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변화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사회생활,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질서의 출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한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데올로기 시대의 이상처럼 하나의 이념아래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지 않는다. 즉 이념의 다원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컴퓨터 시대의 사이버 공간의 부각은 더 이상 현실과 환상, 원본과 모사물 사이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미지의 범람으로 인해 실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심지어 실제와 전혀 무관한 허구적 이미지와 기호들로 채워진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 또한 경제적 이윤추구의 적극적인 대상이 됨으로써 정신적 산물로서의 문화발달보다는 문화의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편화된 문화들을 아무런 대가없이 향유하는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은 자라간다.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기 특유의 성향으로 인한, 기성의 성인문화와는 다른 신세대적 문화와 감각이 존재한다. 그들의 감각은 빠르고 새로우며 순간순간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들은 좋아하는 색감에서부터 기존의 정형화된 컬러를 거

부한다. 이렇듯 삶의 틀과 사고방식 그리고 생각 자체가 전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새로운 유형의 포스트모던한 감각 지향적 문화전형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여러 문화전형들의 조화된 모습 못지않게 갈등과 부조화, 불의가 다수의 인간적인 삶을 저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양태가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도산업화, 정보화의 전개 이면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방향감 상실, 가정의 붕괴, 학교 등 기존 전통의 붕괴현상에 대한 부적응과 좌절감, 폭력적인 대중문화의 확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지적, 정서적, 문화적, 신체적 등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시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응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대 과학 기술 문화의 현저한 발전으로 인하여 현대인은 지성적 인간 정신만을 가치적인 것으로 추구하고, 이에 반해서 정의적 인간 정신은 소외되기에 이르렀으며, 디지털 시대의 영향과 맞물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교육은 어떠한가? 이제까지 교육이 추구했던 절대 불변의 '진리'가 회의되고, '인간'과 '학문'의 독립적 자율성이 비판되면서 교육에서의 목표, 내용, 방법 전반에 걸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다음 세대 모두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할 '그 무엇'이 없어짐에 따라 상대주의에 근거한 타자성의 논리가 수용되고, 자기 한계적 인식태도에 근거하여 현실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해석능력, 비평학습이 강조되고 있음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에서 미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또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미술교육은 어떤 의미로 이루어져야 할까?

포스트모던 미술의 특징으로 박소영은 ① 진보에 대한 의문과 개념적 갈등의 수용, ② 문화적 생산자로서의 미술가, ③ 문화적 산물로서의 미술, ④ 제도론적 시각과 작품해석의 다양성 수용, ⑤ 미술적 가치의 다원성, ⑥ 페미니즘 미술의 부각, ⑦ 대중/고급문화의 경계 소멸을 꼽고 있다⁴⁾.

결국 주도적인 단일한 흐름을 거부하고 서로 상충되는 갈등을 수용하며 경

4) 박소영, 2001, 김정선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교육」,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예경2003, p. 216 재인용

계를 타파하면서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예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지전능한 듯한 ‘대서사시’가 서로 다른 ‘소서사시’들이 공존하는 다원적 체계로 대체되면서 교육에서도 이질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며, 영웅보다는 구체적인 ‘너’와 ‘나’가 모두 존중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정형화된 하나의 체계적 이론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타자성이 갖는 속성이고,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 위치와 문화적 실행을 허용할 수 있다. 타자성의 정당화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만을 내세워 그동안 소외된 실천적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예기치 못한 일상적 지식, 영혼적 지식, 그리고 작은 대화 등이 학문의 영역에 들어온다. 또한 타자성의 논리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에 대한 시각도 변화한다. 미술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창조적인 미술가에 의한 순수한 미적 창조이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언어라는 믿음과, 순수미술이 대중예술과 차별되며 미술해석 또한 미술전문가의 영역이라는 믿음, 그리고 모든 미술은 서구의 미적 모델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는 믿음 등은 더 이상 그 존재기반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말 그대로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각 개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인정할 때 비평적 주의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그와 같은 학습은 잘못된 또는 편견에 찬 재현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미디어 비평 또는 문화 학습의 가치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학습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정확성 또는 객관성을 의식하게 된다. 다양성만으로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은 선택의 여지를 남기고 선택은 기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방임적으로 내버려두는 사고가 너무나 흔해져서 비평적 시각이 서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은 결국 ‘나’를 잃어버린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대체로 무난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어찌면 그들에 가리워져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도 자라난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는 청소년 전체에 비하면 적은 숫자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타자성의 논리가 모든 청소년에게 흔들리는 ‘나’를 세워주는 것, 즉 자아를 찾고 문제에 대한 치유를 하면서 얻게 되는 가치로 비로소 다른 이의 가치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에 요구되는 미술교육의 역할이다.

2.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우리는 인간의 발달적 특징 때문에 각 시기별로 행동과 정서에 있어 공통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대체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짐작된다.

현대의 청소년행동 특성에 대해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

첫째, 청소년은 자기표현을 분명히 하고,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등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개성과 다양성, 유행에 민감하고, 자유분방하며, 외모에 큰 관심을 가진다.

둘째, 감각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충동적 행동 패턴을 지향하는 경향이 많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영상매체나 뉴미디어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으며, 욕구충족을 위한 충동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셋째, 자기행동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넷째, 자신의 땀과 노력을 통한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노동을 기피하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며, 성에 대한 상품화나 무조건적 동경심 또는 낭만적 사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먼저 위와 같은 청소년기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이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변화로서 신체적인 성적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2차 성장과 성적인 성장은 성인과 같은 크기의 또는 그 이상의 큰 몸매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는 성인과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게 되거나 반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즉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청소년들은 급격하게 나타나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불안과 수줍음, 고립 등 강한 정서를 보이는 등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불어 자아상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성적인 충동의 증가와 통제의 어려움은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개입될 수 있으며 공격성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5) 청소년위원회, 2001, 김영한 외,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 III-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행정제도 환경, 외국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재인용

미술작업과정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신체 변화와 심리적 변화로 인한 충동성을 방어 없이 투사(投射)하고 승화시키기에 충분한 통로가 되어주며 울타리가 되어준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신체적 변화가 고립과 정체성, 공격성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단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프로이트(Freud) 이론에 근거한 에릭슨(Erikson)⁶⁾의 인간 발달의 8단계는 심리사회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인생의 여덟 단계는 불변의 순서를 거쳐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발달해 간다고 한다. 자아정체감의 형성과정은 개인의 신체, 욕구, 능력,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한 동일시 역할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각 개인의 방식에 의해 통합됨으로써 이뤄져 간다. 이 과정은 성적 충동과 같은 생득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성장이 정체감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즉 급격한 개인의 심신의 변화가 정체감 혼란을 야기 시키기도 하는 한편, 사회적 측면이 관여된다. 다시 말해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신체적 성장이나 성적충동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눈에 좋게 보이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고, 동일시하려 하며, 집단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 개인이 획득하는 성취가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성취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청소년은 나중에 미루거나 조금하게 포기해 버리고는 다른 제한된 역할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만약 끝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게 되면 심각한 정체감 위기에 빠지기도 하며 그 과정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행 등의 부정적 정체감이 형성되기도 한다. 단, 정체감 형성은 이 시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과정으로 개인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며, 이는 유아기 어머니의 보살핌에서의 상호관계에 그 뿌리를 둔다. 아동기 동안의 성취가 이 시기의 정체감형성에 기여하며 이후에 예상되는 성취들도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즉 계속되는 자아통합과 함께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이다.

정체감 형성에 관련하여 미술은 청소년에게 창의적 잠재력을 깨워주는 중요한 역할로서 다가간다. 작업과정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관련된 삶의 과업이 현

6) Erik Homburger Erikson 독일 출생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인간 형성을 문화·사회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특히 청년기의 '정체성 위기' 해결방법 여하에 따라서 역사의 양식을 창조하는 측면을 밝혀냈다. 정체성 개념에 의해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재의 행동과 태도에 작용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잠재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케 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다.

3.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 및 청소년 문제

1) 청소년 문화의 특징

청소년 문화는 그들의 증가된 감수성에 의해 뚜렷이 징후가 드러나므로 관찰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를 면밀히 살펴봄으로 그들의 위기상황도 짚어 낼 수 있다.

최근 일고 있는 ‘교실 붕괴’현상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이탈 현상’은 교육 과정에서 전환이 절실함을 알려주는 징후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대로 그것은 한편에서는 역사적 시점에 따라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근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소비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면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 지점에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생기고, 기성세대와 큰 세대차를 느끼게 되는 이들은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신들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기적 전환의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신세대’ 청소년의 문화는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양상을 포함하여 각 하위집단 간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 특징적인 문화 중에는 청소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그 첫째 양상으로는 청소년의 입시문화라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은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위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성적이 이들 청소년의 인간적 가치를 가늠하는 유일무이한 평가 준거로 대두되면서 이들에게 있어 학교 공부와 시험은 일생일대의 최상 과제가 된다. 남을 밟고 올라서라는 사회비판적 메시지의 랩뮤직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청소년들은 경쟁에서 밀릴 때, 시험에 실패했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엄청난 좌절을 하게 되며 때론 서슴지 않고 가출이나 자살 또는 무서운 범죄와 마약중독이라는 극단적인 선에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입시문화의 스트레스 속에서 청소년 세대만의 고유한 문화와 성장가능성을 완전히 외면당한 채 길들여지고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제도화된 경쟁의 사다리를 타고 긍정적이고 순응적인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 입시제도에서 억압되는 육체적·정신적 박탈을 학교 밖의 영화, 비디오, 음악, 텔레비전 등의 문화상품 소비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 학교 문화의 비공식적 서클의 구성원이 되어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반항하기도 한다.

다음의 양상으로는 소외문화를 들 수 있다. 소외문화는 관점을 달리함에 따라 그 주체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인관계문제 외에도 개인과 학교, 크게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소외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성숙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와 학업이라는 굴레에 묶여 모든 것을 대학입학 후로, 또는 성인이 된 이후로 유예시켜야만 하는 타율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무력감과 소외감, 그리고 욕구 불만과 욕구좌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그들의 지위는 더 이상 교육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그들의 교육기회보장에 사회적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들의 탈교육적인 신분은 그냥 방치되어도 별로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회로부터 교육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런 그들의 사회적 신분에 비해 교육소의 젊은이들이 때때로 야기해 놓는 행위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거리로 부각되곤 한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문젯거리’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들 청소년 신분 그 자체가 사회적인 문젯거리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이미 불량 청소년, 교육적으로는 구제 불능의 집단으로 낙인되어 그들의 행동도 함께 문젯거리로 인식되곤 한다.

좀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인 간 관계형성에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교실 내의 또래집단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거나, 몇몇 질 나쁜 학우로 인해 따돌려지는 소위 ‘왕따’인 청소년들이다. 단,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학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들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고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어 타인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려는 부류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으로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물리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 못지않게 중요하게 돌보아야 할 집단이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에 관련된 정의로운 결정,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태도가 부재하거나 때

우 낮은 가치로 여겨진다. 또한 범죄와 같이 드러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 방관하는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경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이 남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일부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 즉 인터넷 상에서 끊임없이 잔인하게 놀리고 따돌리고 시달리게 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해왔다. 그런가 하면, 순전히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하고 남을 비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 우편과 대화방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 온라인 안전 지원단체의 책임자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들 가운데 많게는 80퍼센트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요즘 들어 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은 소문이나 험담, 비방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먼 곳까지 퍼져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훨씬 더 추잡해지는 경우가 많다⁷⁾.

경쟁문화, 소외문화에 이어 청소년기의 부정적 문화에는 일탈현상이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살 그리고 약물 및 마약중독, 심각한 청소년 강력범죄가 촉발되고 있다는 많은 신문기사와 언론보도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들 자료들에 따르면, 최근 계속해서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단계로까지 저연령화되고 있고 재가출과 상습가출이 늘고 있다. 이들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를 배회하다 도벽이나 강도 및 각종 폭력, 패싸움에 가담하게 되고 인신매매와 피라미드 판매조직, 그리고 윤락가 등에 넘겨지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탈증후군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자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학교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경우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으며, 약물중독 및 약물 오남용문제 또한 심각한 일탈현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이들의 범행수법이 점점 잔학하고 조직화되고 있으며 연령층 또한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2)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및 범주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라고 할 때에는 청소년에 관한 사회문제, 공공문제로서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사회의 움직임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7) 「깨어라!」, 위치타워성서책자협회, 2007, 3 p.6

것을 지칭한다. 사회문제로서 인식되는 청소년문제는 중요한 다수의 사람들, 사회의 권력집단 또는 지배적인 인간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근심거리 또는 사회에 위협적인 것으로 인지되거나 어떠한 조치가 있다면 해결·치료·교정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사회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⁸⁾.

특히, 청소년문제는 특정 시대의 그 사회의 신념, 규범, 가치, 제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문제가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시대적 변화에 상관없이 한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행동은 시간을 초월하여 공존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문제와는 다르다.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며, 청소년 문제행동에는 자신의 발달단계에 위배된 행동, 또는 표출한 행위 자체가 사회 규범 등을 벗어나거나,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행위의 결핍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에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도리어 사회적 가치규준(관습, 규범 등)에서의 이탈 행위로서 사회 및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와 범죄 행위까지 일으키는 문제행동으로 확대되어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렇게 볼 경우, 비행이나 범죄, 반사회적 행동과 퇴행, 고립, 공상 등의 비사회적 도피행동, 발달과업 수행상의 문제행동 및 일상적인 청소년의 고민과 가치관 혼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은 사회질서나 발전을 저해하는 청소년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과 치료 대책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사회 통제라고 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제에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공식적 사회통제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규범을 어기고 문제행동을 야기하였을 때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청소년 문제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로서의 교육은 청소년 개개인에게 직접 투사되는 사회통제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적 시각에서는 발달과업과 관련된 문제,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를 중심으로 문제행동을 다루는가 하면, 이외에도 청소년 자신이 호소하는 일상생활상의 문제, 인간관계상 있을 수 있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한편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비행의 하위개념으로 보

8)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0

고 반사회적 행동, 일탈행동에 국한시켜 다루거나 청소년 문제행동에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범주화 작업은 비행⁹⁾ 분류 작업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하다. 정보인은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주위의 눈에 띄지 않는 ‘행위의 결핍’에 대해서도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¹⁰⁾고 지적하고 있다.

케이와 패터슨(Quay & Paterson)은 문제행동을 행위문제, 사회화된 공격문제, 주의집중문제, 불안-위축문제, 정신병적 문제행동, 운동과잉문제 등 6영역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개인의 부적응과 성격상의 문제 등에 국한되고, 사회적 시각에서의 문제행동은 제외되어 있다. 한편, 정신장애진단 DSMIII에 의한 품행장애¹¹⁾는 문제행동의 범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화의 높고 낮은 정도와 공격성/비공격성 범주에 따라 4가지로 품행장애를 분류하고 있는데, 신체적 폭력, 절도, 거짓말, 만성적 규칙위반, 정상적인 애정적 결속의 실패 등이 포함된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 문제행동에는 법에 의해 저촉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하여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만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닌 반사회적 행동¹²⁾과 주어진

9) 상계서, 비행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심웅철, 1992; 이정현, 1993; 박미정, 1993 재인용)

- 초발행동이 발생한 연령단계에 따라 : 극조발형(10세 미만), 조발형(13세 미만), 중발형(16세 미만), 지발형(16세 이상).
- 동기나 양태에 따라 : 계획형, 우발형, 습관형, 단순형, 공범추종형, 공범주도형
- 비행 과정에 따라 : 욕구실현형, 보상행동형, 정신병질형 등
- 비행 특성에 따라 : 대인비행, 재산비행, 약물사용비행, 성비행, 지위비행, 공공질서비행, 폭력비행 등
- 법률적 입장 : 소년비행은 범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에 비추어 장래 향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14~20세의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촉법 소년(12~20세의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우범소년의 비행(12~20세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대우에 복종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적에서 일탈 또는 우범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 등 장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10) 상계서, 정보인, 1992

1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1955년 국제 질병 분류체계 제7판(ICD-7)에서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소아기에 나타나는 행동장애의 하나로 간주하고 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의 국제 질병 분류 체계 제10판(ICD-10)에서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1968년에 발간된 정신장애 진단분류편람(DSM-II)에서 품행의 장애(disorders of conduct)라는 이름으로 환경에 대한 하나의 반응(reaction)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을 질병분류에 포함시켰다. 1980년의 제 3판 정신장애 진단분류편람(DSM-III)에서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DSM-IV)에 이르고 있다. (최 영, 《청소년 비행(품행장애)의 의학적 관점》,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클리닉)

12) Binder, 1988,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0

시대의 주어진 사회 내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행동과 청소년기에 기대되는 행동의 미수행, 또는 왜곡된 행동,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장애¹³⁾와 사회나 소속집단에 대한 부적응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행동의 원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 문제행동을 찾는 이론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적 원인론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후천적 원인론이 있다. 유전적 원인론에서는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그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결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후천적 원인론에서는 문제행동이 후천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퍼스널리티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은 인간의 심리적 또는 정서적 불안정이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본다.

다음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문제행동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구조지향 이론과 사회과정지향 이론, 그리고 인간발달 생태학적 접근 이론과 맥락주의적 접근 이론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청소년들 개인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 개인적 요인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고, 자기통제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반면,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실패를 추구하는 동기가 높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격성은 통제의 정도에 따라 보이는 문제행동 양상이 다르다고 본다. 과소통제형은 행동 억제의 힘이 약하고 충동성이 강한 사람으로 이런 성격이 반사회적 경향과 결부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될 수 있다. 과잉통제형은 지나치게 자제력이 강한 사람으로, 평소에는 폭력적으로 행동하

13) 상계서, 이봉건 역, 1989

는 것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나, 만약 자신의 억제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촉발자극이 주어지면, 매우 심한 극단적인 공격행동을 하게 될 수 있으며, 그 폭력적 대상이 자신일 경우, 자살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충동성 역시 문제행동과 매우 밀접한 요인이다. 대체로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행동을 금지하거나 자기통제를 하는 능력이 약하고, 문제해결 의지보다 자기규제적인 사고 없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치움으로써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 역시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로 인해 문제상황 자체보다 무력감이나 우울감, 분노 등 정서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더 크게 안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점이다.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열등감을 호소하거나 위장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성적 자아보다 정서적 자아가 지배적이며,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하고, 자신의 갈등이나 문제 등을 가족에 투사시키는 등 미성숙한 자아상을 보일 때, 잠재적 비행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자존심의 손상, 또는 수치심을 느낄 때, 격분에 의해 폭력을 동반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지지해주는 불량또래집단을 통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기 쉽고, 비행에 가담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개인적 요인으로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이 있다.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은 청소년들이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개념화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과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¹⁴⁾. 이러한 실패가 청소년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왜곡 현상을 자아중심성이라고 한다.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에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두 개의 하위개념이 있다. 상상 속의 청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찬미하거나 비판한다고 여기는 것이다¹⁵⁾. 개인적 우화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상상속의 청중)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자신에

14) Looft, 1971, 권두승·조아미, 『청소년 세계의 이해』, 문음사, 1998, 재인용

15) Elkind, 1967 (각주15~21, 상계서)

대한 독특함, 불멸감, 전능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독특함, 불멸감, 전능감의 특징을 야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이므로 아무리 오토바이를 타고 빨리 달려도 자신한테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상상속의 청중은 청소년들의 지나친 자기의식이나 파괴행위를 잘 설명해 준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의식은 청소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믿으므로 생기는 것이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노래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는 행동을 상상하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역시 청소년들이 상상속의 청중들에 둘러싸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괴적인 행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엘카인드는 상상속의 청중이 중류층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¹⁶⁾.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또 다른 개인의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 자아통제력을 들 수 있다¹⁷⁾. 자아통제력이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뜻한다¹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권리, 그리고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해야 하는 자아 통제가 요구된다¹⁹⁾.

자아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청소년은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력의 미숙,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통제는 비행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²¹⁾.

(2) 사회환경적 요인

① 가족 · 또래관계 요인

가족환경 중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결손여부 등 구조적 측면과 부모 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 기능적 측면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16) Elkind, 1978

17) 김선희, 2000,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백혜정, 황혜정, 김현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재인용

18) Shaffer, 1993

19) Shaffer, 2000(각주 24~28, 상계서, 재인용)

20) 김현숙, 1998; Mischel, Shoda & Peake, 1988

21) 하영희 · 김경연, 2003

특히,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감독 소홀 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초기의 반사회적 또래와의 접촉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훈육이 지나치게 엄하거나 무관심할 때, 적대적, 거부적 태도를 보일 때, 합리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일관성이 없을 때, 부모의 언행과 훈육이 불일치할 때, 부모가 자녀를 편애할 때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한다. 또한 부부간 불화, 가족 간 폭력이 자행되는 가족의 갈등적 분위기, 주거환경 및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경우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문제행동 유발 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청소년 자녀가 부모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해 인지하고 내면화하는 경우,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수용과 배척 여부도 문제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또래 집단의 성격, 또는 또래 집단 중 비행친구의 수, 처벌을 받은 친구의 수, 비행 또는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동의 정도 등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즉, 비행 또래 집단과 자주 어울리고, 친한 친구 중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면, 비행 가치에 내면화되거나 동조적 성향을 보여 비행에 가담하기 쉽다. 특히,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나름대로 자신의 자아를 지지해 줄 타인을 찾게 되고, 불량 청소년 집단을 통한 유대감과 소속감이 비행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행위화시킨다고 본다.

② 학교 및 유해환경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적 요인 중 가정환경 다음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학교환경 요인이다. 윌슨과 하웰(Willson & Howell)은 학업수행이 낮거나 학교 규범을 어기는 청소년이 다양한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김준호는 교사에 대한 불신과 반항, 교사의 공부 압력, 학교 또는 학업 생활에 대한 거부감 등을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또 다른 사회 환경 요인으로는 유해환경의 노출과 매스미디어의 무분별한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유해업소의 퇴폐성, 선정성과 유해매체의 자극성, 폭력성, 유해약물에의 습관성 요인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문제행동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환경에 중독되어 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접하는 대중매체는 폭력 미화주의나 쾌락주의적 사고

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이 문제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합리화시키거나 때로는 무감각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의 시기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당당한 태도를 갖도록 지도하며, 아울러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다각적인 결과에 대해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충동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에 다소 제재력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당수의 청소년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자신의 분노, 공격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해 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없애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이 유해한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4) 청소년 문제

물질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기성세대가 모두 살아가기 바쁘고, 돈벌이에 급급하게 되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만 가는 향락산업의 물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은 희박해져가며, 우리의 청소년은 때로는 무관심과 소외감 속에서, 때로는 현실 도피적이고 터무니없는 환상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보고되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결코 쉽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행동선상에서 이해할 때,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아동기 생활경험의 산물이요, 청소년기 발달단계상 흔히 있을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등 가족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위주의 획일성을 지적하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간 발생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것이 미봉책에 그치거나 현실성 없는 경우가 많고, 제시된 좋은 대안이 일정 기간 추진된 경우도 적고, 따라서 시행된 정책에 대한 방향조정을 거친 기억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하루가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청소년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가장 최단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간단하게 풀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의 파장은 커지고, 골도 깊어진다. 우리의 노력이 단시간에 청소년 문제행동을 줄이고 치유하는데 있어서 변화나 개선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다 해도, 여유와 인내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처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한다.

여기서는 청소년문제들 중 공격성, 성문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다루고자 한다.

(1) 공격 · 폭력성

청소년 폭력의 발생 빈도나 잔인성, 조직성, 폭력행위의 동기를 살펴볼 때 청소년 폭력은 우리사회의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근래에 들어 더더욱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폭력의 조직화나 잔인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이 거의 보편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히 최근에는 소위 ‘왕따’라고 지칭되는 ‘집단 따돌림(괴롭힘)’이나 심각한 여학생 폭력의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문제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① 청소년 폭력의 특징

과거, 혈기왕성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청소년 사이의 폭력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청소년 폭력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청소년 전문가들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청소년 폭력의 특징²³⁾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 폭력의 잔인성 또한 단순비행이나 탈선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사례

22) 김기현, 2000, 전명기, 「청소년 폭력」, 2000, 계인용

23) 전명기, 2000, 상계서

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가치관의 혼란으로 청소년 자신이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원인에 있어 타당한 청소년 폭력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이 장난삼아 저지르는 충동적 폭력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폭력행위가 비행청소년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모든 청소년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반화된 비행 유형이 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 폭력이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청소년 폭력은 단독 범행보다 2인 이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의 폭력집단은 단순한 패거리 집단, 조직적인 규율을 갖고 움직이는 불량씨클,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된 하부폭력조직 등이 있다.

다섯째, 청소년 폭력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여섯째, 여학생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일곱째, 일반적인 폭력행사나 금품갈취 이외에도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놀림, 시험지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숙제나 심부름시키기 등 새로운 형태의 심리 폭력이 출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일회성 단순폭력보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소위 학대적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② 청소년 폭력의 원인

청소년 폭력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란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 심리적 요인과 가정, 학교, 사회적 환경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위에 언급한 청소년문제의 일반적 원인과의 매우 유사하였다. 이상의 각 요인들에 대해 간단히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학업, 진로, 자아정체감 등 해결해야 할 과업이 많고, 주위의 기대나 자신의 욕구,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 간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반항적이며, 적대감이 큰 경우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되며, 폭력행사를 통해 약자를 괴롭히는 쾌감과 우월감을 경험하게 된다.

24) 전명기, 상계서

둘째, 가족적 요인으로, 많은 논의들이 결손가정이나 이혼 증가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매우 피상적인 견해이다. 보다 구체적 요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 거부적, 폭력적, 방임적 양육 태도,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와 부부간의 잦은 불화 및 알력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무관심과 부모의 폭력에 위축되고, 강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공격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 폭력을 모방하게 된다.

셋째, 학교교육이 갖는 여러 역기능적인 요인 역시 청소년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고 저마다의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라는 잣대에 의해 문제 집단이 형성되고, 낙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은 힘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폭력무감주의, 생명경시주의와 치안부재가 청소년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폭력에 대한 대중매체의 빈번한 노출, 폭력에 대한 미화, 폭력에 대한 합리화 역시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며, 도덕의식이 약한 사람에게는 방아쇠 효과가 있다. 퇴폐·폭력문화를 조장하는 잡지, 만화, 광고, 불법비디오 등의 범람과 유흥업소, 비디오방, 락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의 잦은 노출 역시 청소년 폭력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청소년 성비행

우리사회에는 이중적인 상반된 두 문화가 공존하는 듯하다. 하나는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성문화이며, 다른 하나는 매스컴을 중심으로 한 성문화이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이 성에 대해 아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며 이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은 성적으로 무지하거나 성에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순진하게 보고, 반대로 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아이를 조속하거나 문제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성에 대한 금기시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즉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의 시선을 피해 나름대로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특히,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호기심 충족 내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보는 성'이 상품화되기 시작하면서, 법적 규제를 피해 청소년에게 무차별하게 보급된다. 특히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는 성은 공격적, 파괴적, 쾌락적으로 그려지

고,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만 그려지고 있어 성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① 성비행의 유형 및 인식

사회 변화에 따라 성규범 역시 크게 변했으며, 이에 따라 성행동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역시 변했다. 정절을 중요시 여겼던 시대에는 결혼 전 성행동과 혼인관계 이외의 성행동을 일탈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의 동향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줄 아는 경우의 성행위는 문제삼을 수 없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십대 상담 코너들은 청소년과 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금욕을 하거나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주된 목표는 성관계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안전하게’ 갖도록 권장하는 것이다²⁵⁾. 청소년의 성행동이 기존에는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비행으로 분류되었으나, 성에 관한 행동은 개인적인 일로 간주되는 등 성관념의 변화와 함께 점차 지위비행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성비행에는 광범위한 여러 행태가 포함될 수 있다. 성도착증은 성행위나 성적 흥분을 위해 비정상적 대상, 상상, 행위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성도착증 가운데 상상만 하는 행위는 해가 없으나, 심한 경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여성 물건애, 의상도착증, 관음증, 노출증, 음란전화, 성적 가학증, 소아기호증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은 강간, 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음란행위 등이 포함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청소년 성비행 역시 청소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과 관련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원조교제도 청소년 성비행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상담소의 연구²⁶⁾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이라는 말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성관계, 키스, 이성교제, 사랑, 순결 순이라고 응답했다. 청소년은 성충동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성충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동을 느끼게 될 때는 남녀 모두 음란비

25) 「깨어라!」, 전개서, p. 7

26) 성폭력 상담소, 1996

디오나 만화를 보았을 때, 선정적인 옷차림의 여성을 보았을 때, 잘 생긴 이성을 보았을 때,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라고 응답하였다. 성충동을 느낄 때에는 그냥 참는다는 경우가 50.6%로 가장 많고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한다는 경우가 20.0%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²⁷⁾에 의하면, 성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는 여학생은 38.6%이며, 남학생은 6.8%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성적 자극을 받는 때는 영상매체를 볼 때이며 가장 많은 성관련 고민은 성충동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관계는 중·고등학교시절에도 가능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20.1%이고, 특히 남자의 경우 25.5%, 여자는 14.6%로 과거에 비해 다소 개방적이고 허용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²⁸⁾.

② 성비행의 원인

성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성에 민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기계론적인 현대 사회의 특성상, 인간은 외로움과 존재 상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성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허전함, 공허함, 무의미함에 빠져 더욱 성에 집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이러한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세대는 역시 청소년이다. 자신의 신체발달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성충동이 강한 청소년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즉,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청소년은 재미있고 자극적인 성인 중심의 성문화가 펼쳐진다고 해도 자신의 삶의 목표달성을 위해 눈앞의 욕구를 유보-실제로 심리학에서 이런 능력을 만족지연능력이라고 한다-시킬 수 있지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은 자극적이며 쾌락적인 성문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고, 빠져들기가 쉽다.

성비행 각각의 유형에 따라 발생원인은 차이가 나지만, 성비행은 앞서 언급된 사회적 조건과 개인 성향과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된다고 본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등 영상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성에 대한

27)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28) MBC, 1999

태도 및 행동의 영향이 크고, 집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습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청소년 성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특히 공격성이 높고 충동의 절제와 자아통제력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여성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큰 경우 성비행을 하기 쉽다. 예를 들어 유아기의 애정적 접촉의 부족이나 아동학대의 증가, 양육방법의 혼돈, 이혼율의 증가 등은 성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비행을 초래한다.

한편, 성비행 중 사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고, 행위 결과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성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성폭력의 원인을 가부장제의 가족제도와 각종 성 관련 산업, 쾌락주의, 남성적 성을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성문화 등의 거시적인 배경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며,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은 이외에도 다른 성비행의 원인과 유사하게 호기심이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또래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사회적, 개인적 열등감과 다른 곳으로부터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폭력을 할 수도 있다.

(3) 우울증 및 심리적 외상

비교적 정서적인 동요가 적었던 아동기는 사춘기가 시작됨으로써 끝나고 소위 '질풍 노도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된다.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가 청소년기를 '발달적 혼란'으로 기술했듯이²⁹⁾, 일반적으로 정신분석학자들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혼란과 반항의 시기'로 특징짓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춘기 변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여러 가지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우울증, 사회 공포증, 약물 남용, 비행, 그리고 자살 시도 등 제반 정신 장애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된다는 사실은 청소년기가 정신 장애를 보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시기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마음에 상처를 가진 아이들 Children in Distress: A Guide for Screening Children's Art』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보고된 부정적 정서로서 두려움, 불안, 우울, 분노 등이며 그 심각성의 정도는 다양하다³⁰⁾고 알려준다.

29) Anna Freud, 1969, 신민섭, 「청소년 정신건강」, 2000, 재인용

30) MarcFarlsnd & Finkelhor, 1986 : Sgroi, 1982, Linda Whitney Peterson·Milton Edward Hardin, 이종숙·이은경 역, 『마음에 상처를 가진 아이들 Children in Distress: A Guide for Screening Children's Art』, (주)시그마프레스, 2005, 재인용

부정적 행동을 확인한 결과, 위에 언급한 공격성, 자기파괴적 성향, 피해 아동 자신이 당한 바로 그 행동을 다른 대상에게 부당하게 재연하는 것 등이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문제들인 우울증과 심리적 외상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① 청소년 우울증

우울증은 우리 주위에서 자주 듣거나 관찰할 수 있는 정신과적 장애의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며, 청소년들의 약 20%가 한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니,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애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뉴스에서 접하는 유명인의 자살사건도 주 원인의 하나로 우울증이 빠지지 않고 있다.

우울증은 우울 증상을 유발할 만한 외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외인성 우울증, 혹은 반응성 우울증’과 ‘내인성 우울증, 혹은 주요 우울증’으로 구분된다. 외인성 우울증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실연, 실직이나 중요한 시험의 실패 등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며, 내인성 우울증은 외적인 촉발 사건 없이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분비, 신경전달물질 등 내적인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우울증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우울증의 원인으로서는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모두 중요한데, 우울증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들 중에서 정신분석적 이론과 인지적, 행동적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드는 우울증을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서, 상실 경험에 따른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진 것으로 개념화³¹⁾하였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은 실제적이거나, 혹은 상상 속에서 상징적으로 일어난 것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사랑하는 대상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감은 향해질 대상이 사라진 상태이고 또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가진 분노에 대한 초자아의 도덕적 억압으로 인해 분노가 무의식속으로 억압되어 결국 자신에게로 내면화되며 그 결과, 자기비난, 자기 책망, 죄책감 등으로 인한 자기 가치관의 손상과 더불어 자아기능이 약화되어 우울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우울증이 환경으로부터 받은 긍정적 강화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고 본다. 이때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화를 얻을 수 있는 사회

31) Freud, 1917, 신민섭, 전역서.

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불쾌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하면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가 더욱 결핍되어 그 결과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우울증을 설명하는 중요한 학습 이론중의 하나가 학습된 무기력 이론³²⁾이며 이는 셀리그만(Seligman)에 의해 제기되었다. 실패나 좌절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도 절망스러운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는 무력감이 학습되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³³⁾.

우울증에 대한 인지이론³⁴⁾에는 부정적 생활사건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해석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된다고 본다. 동일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는 개인이 가진 인지적 틀, 즉 인지 도식(Schema)이 다르기 때문이다.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초래된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숙과 심리-사회적 성숙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춘기 변화에 수반된 성적 충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부과되는 상충적인 요구와 역할들로 인하여 쉽게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갈등에 휩싸이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 있고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부모나 교사들에게 질책을 받고 교우관계에서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 특유의 심리-사회적 상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갈등과 의문을 강하게 야기시키게 되며,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우울증은 연령에 따라 그 발생 빈도 및 증상의 변화가 현저한 장애이다. 우울증은 아동기에는 비교적 발생빈도가 낮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 급증하게 되며,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2배 정도 높은 유병율을 나타낸다.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기력감, 자신감의 상실, 흥미나 즐거움 및 활동 수준 저하, 주의집중 곤란, 피로감, 식욕 및 성욕 감소,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 자살행위 혹은 생각, 수면장애 등이지만,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달리 우울한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우울하고 슬픈 정서보다는 짜증을 많이 내고 부모에 대한 반항, 공격적인

32) Seligman, 1975,

33) 권석만, 2000

34) Bwxk, 1967, 1976

행동을 보이며, 무단결석, 가출, 도벽을 보이고,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고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 성적의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비교적 모범적이었던 학생이 상실, 좌절 등을 경험한 뒤 비행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내면의 우울증상이 문제 행동으로 외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⁵⁾.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내적인 갈등이나 좌절, 우울감 등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비행을 보일 때 이를 ‘가면 쓴 우울증’, 혹은 ‘위장된 우울증’이라 하며, 공식적인 정신과적 진단으로는 우울증적 품행장애라고 한다.

이전에는 모범적이었던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후에 부모님께 자주 반항하고 학교를 무단결석하거나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여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한다거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술, 담배들을 하거나 도벽 등 비행을 보일 때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문제아’라고 단정지어 엄하게 야단치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학생이 우울해질 만한 부정적인 사건은 없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② 심리적 외상

외상(trauma)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겨진 상처를 뜻한다. 질병이나 폭력적 범죄, 자연 재해나 이혼, 해고, 각종 사고와 학대 가정폭력, 전쟁 등 불행한 일들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므로 누구라도 외상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 외상은 우리에게 직접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한 번의 끔찍한 사건일 수도 있고, 긴 시간에 걸친 고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매우 파괴적이다. 사고나 폭력, 질병, 재난과 같은 외상을 보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외상의 충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는 나이, 사회적·문화적 영향, 이전의 외상 경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대처 기술 등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상이 될 만한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일 수도 있다. 또 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상을 입었을 당시와 그 이후에 지지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적 경험은 고전적 조건형성 과정을 통하여 사회 공

35) Weiner, 1982(각주 39~42, 신민섭, 상계서)

포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시에,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하여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³⁶⁾.

국내 연구로 오경자와 양윤란은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로 외상경험의 영향³⁷⁾을 보고하였고, 양윤란은 또래 관계기술과 사회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³⁸⁾에서 인지적 변인 이외에 직접적인 외상경험의 영향을 후속 연구의 제안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송은영은 청소년기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인지적 변인들과 함께 외상경험의 영향력을 보고하였다³⁹⁾. 연구결과, 외상적 경험이 사회적 불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외상적 경험에 대한 보고가 사회불안의 특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정상집단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사회불안자의 경우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외상적 경험의 직접적 영향력 외에 이를 매개하는 사회불안 성향자의 개인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영향은 간과할 수 없지만, 사회불안 증상에 미치는 외상적 사회적 사건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는 못한다⁴⁰⁾고 할 수 있다.

한편, 외상경험과 관련하여 테데시(Tedeschi)와 캘혼(Calhoun)은 외상적 사건이 갖는 특징에 대해 6가지로 정리하며, 인생주기의 각 시기마다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¹⁾. 즉 같은 사건일지라도 아동기에 겪은 사건과 성인기에 겪은 사건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기에 경험한 사건은 이미 형성된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지만, 아동·청소년기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인생 전반을 통해 그 영향이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것은 외상적 사건이 상당 부분 외상경험 시기에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은 사회불안의 발생경로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상적 경험에는 대개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비웃음, 거부, 무시, 고립 등과 같은 또래로부터의 직접적 외상경험과 또래와 함께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특정 수행을 하거나 또래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외상적 사건들이 포함된다.

36) 오경자·양윤란, 2003b, 강민지,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 또래 관계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석사논문, 2006, 개인용

37) 오경자·양윤란, 2003a

38) 양윤란, 2004

39) 송은영, 2005(각주 44~46, 상계서)

40) 문혜신, 2001

41) Tedeschi & Calhoun, 1995 (각주47, 48, 상계서)

이러한 우울증 및 심리적 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심리치료에서는 감정을 숨기거나 회피하기보다 감정을 제대로 알고 표현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 때 치료받는 사람은 갈등의 근원을 이해하고 개선하며 통합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끔은 언어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할 때도 있다. 특별히 외상이나 위기, 상실로 인한 감정은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언어가 그러한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다. 감정은 단어와 연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마음속에 숨겨두어 우울함이나 혼란, 불안, 절망, 좌절 등을 초래한다.

이에 반해, 미술은 회화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은 언어로써 명료화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미술표현은 단선적 과정이 아니므로 동시에 여러 가지 갈등을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늘날의 사회적 양상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질과 청소년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 문제를 개념화하고 주요 문제들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 이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 중 교육적 효과에 의해 변화 및 예방이 가능한 부면(部面)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미술이 어떻게 치료와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Ⅲ. 청소년 문제와 미술치료 그리고 교육

청소년문화는 현재와 관련하여 대안적인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문화가 진정한 또 하나의 대안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칫 흔들리기 쉬운 개인적·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에 더하여 위에 살펴본 청소년 문제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소와 배설(카타르시스)을 경험하며 교육적 프로그램을 통해 각 상황에서의 매듭을 풀어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감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우리의 교육이 그동안 감성적인 측면을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인지적 능력을 강조함에 따라 다른 능력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과 인간중심교육의 형태로서 정서적 능력의 발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성지능이 중요하고 교육에서도 필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더욱이 미술은 감성지능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아주 미흡한 형편에 있다. 감성지능은 다른 교육방법이나 생활 속에서 길러지기도 하지만 가장 표출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미술이다. 미술은 인간 내면의 자유로운 표출을 지향하기 때문에 감정, 정서의 문제와 직결된다.

1. 대안으로서의 미술

창조적인 미술과정은 시각적 은유와 시각적 사고를 통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위기를 해결하며 내적 갈등을 변형시키도록 이끈다. 시각적인 은유는 생각이나 느낌, 경험, 대상, 감각, 행동을 의미하는 이미지이다. 예를 들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곡선이나 빛나는 태양, 행복한 얼굴 등으로 행복을 표현할 수 있다. 아니면 배가 아픈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단단하게 꼬인 나선이나 매듭이 묶인 줄, 혹은 사람의 배 중앙에 커다란 빨간 점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급적거리기는 그림의 원형이며, 이것을 난화라고

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이 난화의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를 연구하고 각 학자마다 그림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유아들의 굵적거리기는 표출운동 자체로서의 쾌감을 들 수 있겠는데, 기능적 쾌감으로서의 행위, 어머니의 태내로의 복귀, 운동의 모방 행위로서의 그림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그림이 의미하는 상징은 그들 자신의 무의식적 세계의 투사이며 호소로서, 심리치료를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정신과 문제를 가진 환자들의 퇴행상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굵적거린 그림에 대한 연구는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단계에 따른 그림의 발달을 설명한다. 초기 연구에서는 난화기, 도식기, 사실기 등 세 단계로 나뉘어서 제시했고, 이러한 초기 연구를 기초로 로웬펠드는 난화기, 전도식기, 도식기, 형태적 사실기, 의사실기, 청소년기 등 6단계로 기술했다.

이러한 그림 발달 과정에 따라 청소년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를 앞으로 써 임상에서 발달 수준의 평가와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안을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미술이 문제들에 적용되어 치료가 되고 또 교육이 될 수 있을까?

1) 우리 몸과 조형활동

인간의 조형활동은 인류의 발생과 연관을 맺고 있다. 즉, 걷고, 만지고, 보고, 생각하는 기능은 인간발달의 기초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인간의 조형활동은 손과 눈과 두뇌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은 미술교육에서나 미술치료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어떻게 지각하여 미술의 조형활동과 연관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손과 관련된 촉각은 시각과 함께 사물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감각으로서, 촉지각을 통해서 감정을 느낀 질감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촉각은 근육운동감각과 함께 인간의 감정교류에도 큰 몫을 하기 때문에 아동과 양육자와의 신체접촉이나 피부마사지 기법이 교육(특히 특수교육)에서나 치료 장면에서 체감의 원리 등의 용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촉지각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만져보고 그 느낌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능동적 지각과 어떤 자극이 피부에 닿아 무엇인가를 느꼈을 때 일어나는 수동적 지각으로 구분된다. 이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조형 활동에서

는 능동적 촉지각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⁴²⁾. 이러한 두 촉지각의 활동이 상호 교차되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대상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감정의 환기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눈은 매우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신경을 통해 대뇌와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대부분의 활동은 시각과 관련되어 있으며 눈을 통해서 사물의 크기나 거리, 공간, 색채 등을 지각한다. 즉, 시지각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개념형성을 하게 된다. 시지각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형태의 지각도 하나의 시지각의 현상이다.

형태의 지각만 가지고 보면, 유아나 아동들의 미술 표현에서 원이 태양이나 엄마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의 표현은 사실적이 아니고 문자나 언어 대신에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한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형태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흥미나 관심이 강한 단계라고 분류한다. 초등학교 중기에 가면 사물의 관계, 주객의 관계, 시간, 공간의 인식이 표현되는데 이때를 사실성과 객관적 표현이 구체화되는 단계라 한다. 그림에 있어서 사생화적인 특성이나 보는 방법이 향상되는 시기이며, 한편으로는 형태나 색채에 대한 심리적인 향상 현상도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 다음 단계는 사춘기로서 형태의 의미보다는 형 그대로의 추상미에 흥미를 느끼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형태나 리듬, 균형 등 형의 아름다움에 대한 구체화 단계에 이른다.

또한 색채의 지각도 시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이한 메커니즘이다. 색의 지각은 생리적인 현상인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이다. 색채감정은 개성이나 환경, 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작용이 본능적일 수도 있으나 대상을 통한 경험에 의한 고유한 감정을 가질 때도 있으며 환경과 사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연상적인 감정이 일어난다⁴³⁾. 이러한 색의 상징성은 색의 연상과 같은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미술치료에서는 하나의 심리진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형과 색의 관계에서 우리들은 색이나 형을 볼 때 그것을 형태로서 지각할 뿐만 아니라 색이나 형에 대하여 감정이 더해지게 되므로 색과 형에 대한 심상이 생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형능력을 고려해보겠다. 사람의 뇌는 100억개 이상의 뉴런으로 가득 찬 대뇌피질이 있어 분업하여 기능을 하고 있다. 뇌의 활동은 제 1블

42) pick, 1981,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미술치료학회, 동아문화사, 재인용

43) 최영훈, 1990, 상계서

력과 외계의 정보를 수용하고 저장하는 제 2블럭(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제 3블럭(전두엽)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전두엽은 다른 동물에는 없는 창조적 사고, 정도, 의지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후두엽이나 두정엽이 현재와 직결되어 있고 측두엽이 과거와 관계가 있다면, 전두엽은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전두엽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것을 통합하고 일체가 되어 작용하는 곳이다⁴⁴⁾.

따라서 조형활동은 전두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즉, 조형활동은 운동, 감각, 지각, 이해, 판단 등 모든 것이 함께 하는 활동이므로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이나 치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체나 색채를 보는 것은 시각이 아니라 대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대상에 관해서 아름답다거나 좋다고 느끼는 고차원적인 판단은 이 감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두부에서 연합령이라고 하는 대뇌피질의 부위에 전달된 후 과거의 기억 등과 조화하면서 추리되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형이라는 인간의 행위는 이와 같은 제 과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조형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지각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형활동이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미술작품(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술치료는 인간의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자발적인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조형 즉 미술활동은 개인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장르라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2. 치료와 교육의 공존

1) 미술치료의 개념 및 미술치료교육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tin of thrapy」의 창간호에서 편집자

4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미술치료학회, 동아문화사, 재인용

인 울만(Ulman)의 논문에서 최초로 표현되었다.

울만은 미술치료에 대해 ‘적절한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던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 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그녀는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분석하여, ‘미술’과 ‘치료’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했다.

이들 중, 치료에 중점을 두는 미술은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서 전달된 상징적 회화이며, 미술치료는 본질적으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법의 도입 수단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되는 학자는 나움버그(Naumburg)를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미술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야말로 치료적인,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병든 사람을 재통합하는 데 현실과 공상, 의식과 무의식을 융합하는 예술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주안점을 둔 학자는 크레이머(Kramer)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창조’와 ‘상징적 회화’ 양자 모두가 미술치료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많았다. 최근에 일본의 학자들도, 처음에는 ‘상징적 회화의 유용성’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고 술회하면서, 가족미술치료의 임상경험을 갖고 난 뒤에는 가족치료와 미술치료의 합(合)이 가족미술치료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가족, 미술, 치료가 같은 비중으로 쌓여 있다고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자들이 진술에서 우리는 미술치료의 개념을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프로이드와 융(Jung), 그리고 설리반(Sullivan)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움버그의 견해는 ‘치료에서의 미술(Art in therapy)’로 요약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움버그의 이론을 심리치료과정에서 그림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방법이라 주장한다. 즉,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형성과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자유연상, 자발적 그림표현과 해석, 그림의 상징성 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나움버그는 정신분석 지향적 미술치료에 있어서 미술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⁴⁵⁾.

- ① 말보다는 그림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 욕망이나 꿈, 환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② 무의식을 그림으로 투사하면 언어적 표현보다는 검열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촉진된다.

45) Naumburg, 1958, pp. 512-516, 상계서, 재인용

③ 그림으로 나타난 것은 영속성이 있어서 내용 자체가 망각에 의해 지워지지 않으며 그 내용을 부정하기 힘들다.

④ 전이문제가 더 쉽게 해결된다. 즉 환자의 자율성은 자신의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고무된다.

한편, 크레이머의 견해는 ‘치료로서의 미술(Art of Therapy)’이란 말과 우연히도 일치되었는데 그녀는 아동미술치료에 관한 많은 연구를 했으며, 그림의 치료적 속성은 그림에 대한 환자의 연상을 통하여 자기표현과 승화 작용을 함으로써 자아가 성숙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미술 작업을 통하여 환자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전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자는 미술작업과정에서 자신의 원시적 충동이나 환상에 접근하면서 갈등을 재경험하고 자기훈련과 인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갈등 해결하고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울만은 1961년에 이미 ‘미술심리치료’와 ‘치료로서의 미술’이란 용어를 다 포함하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저서⁴⁶⁾에서 잘 나타나 있다. 미술과정은 가장 광범위한 인간 능력의 범위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성숙과정에서처럼 그것은 충동과 통제, 공격과 사랑, 환상과 실제,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갈등하는 요소들의 통합을 요구한다. 미술의 기능은 수많은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울만 역시 자신의 미술작가로서의 경험으로부터 미술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나 미술치료 실행에 있어서는 두 측면의 적용 타당성을 인정한다. 미술심리치료와 치료로서의 미술은 같은 시점에 같은 방에 있는 두 측면이거나 다른 시기에 같은 치료자가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임상가로서의 그녀 자신의 생활에서 그녀는 치료로서의 미술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미술심리치료를 사용했고, 미술심리치료가 통하는 곳에서는 치료로서의 미술을 사용해서 이들 간에 서로 융통성 있는 선택을 했다.

즉 그녀는 나움버그와 크레이머의 정신역동 지향적 미술치료를 통합하면서 쟁점부분에 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환자의 작품이 예술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보다는 대상에 따라서 상동적인 표현이나 강박적 표현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때로는 예술적 성취감을 중시해야 하며 미술치료는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⁷⁾. 특히 그녀는 임상세계를 통해서 미술심리치료와 치료로서의 미

46) Ulman, 1977, p.14, 상계서 재인용

술 간의 경계선은 아동미술치료보다 성인미술치료에서 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성인의 치료로서의 미술에 대한 무지이거나 무시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미술치료는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미술치료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은 1960년대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논의와 학회의 설립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미술의 치료적 속성과 미술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의 공통점점을 찾으려 한다. 즉 미술교육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거나 이미지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미술교육에 있어서도 예술치료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활동이며, 바로 여기에 교육의 배후에 자리한 성장과 변화라는 목적, 치료의 배후에 있는 치유라는 목적의 접점이 나타난다. 바이텔(Bwittel, K. R.) 나아가 상상력에 대한 현상학적인 고찰을 통해 ‘치유력’과 ‘창조력’이 한 장의 종이의 이면이라는 사실이 한층 명확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⁸⁾. 미술의 기능적이고 치료적인 접근으로 모든 아동의 잠재된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이 과정이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의 조장, 독립성의 고취, 유연한 사고의 증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 등 창조적인 정신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치료적 미술교육은 미술의 동기부여 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고 이러한 자발성은 자아정체감, 자아 효능감, 자기 존중감을 고양시키는 치료적인 효과를 가져와 정상아동이나 비정상 아동을 막론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한다는 교육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미술치료교육이라는 매우 분명한 단어들의 조합이 개개의 본래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의성의 치유적인 면에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창의성-자기경험적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슈스터(Schuster)는 미술치료의 효과를 수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⁵⁰⁾.

① 미술치료는 창의성을 자극하며, 그렇게 ‘관계된’ 창의성이 삶의 태도에 작용을 한다.

47) 이택중, 1985,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미술치료학회, 동아문화사, 재인용

48) Bwittel, K. R., 1982, 김향미,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치료적 관점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 2005, pp. 123-135

49) 이경원, 노용, 2004, 상계서, 재인용

50) Schuster, 1994

- ② 미술치료는 내담자에게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 ③ 미술활동을 통한 무의식의 창의적 과정들이 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된다.

창의성과 자기경험의 관점에서 본 미술치료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병이 있는 환자나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도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과 자기경험을 위한 미술치료는 무엇보다 상담의 실제와 자기성장 및 성찰을 위한 작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계발과 창의성 함양,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추구하는 활동, 부모교육, 아동 및 청소년 상담 등을 위한 미술치료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성인미술치료 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미술치료는 병에만 적용되는 치료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자기실현과 자아성장에도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치료라는 개념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협의적 의미에서의 인식을 변화시켜 확장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환자를 위한 치료적 역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고 자기 성장적인 교육적 효과의 미술치료라는 점이다.

2) 장점 및 적용

미술 교육적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미술치료의 장점을 H. Wadeson은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⁵¹⁾.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우리는 말이란 형태를 취하기 전에 심상으로 사고한다. 예를 들면,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어머니’의 심상을 떠올릴 것이다. 이 때 삶의 초기의 경험이 중요한 심상의 요소가 되며, 그 심상이 성격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술치료에서는 꿈이나 환상, 경험이 순수한 언어적 치료법에서처럼 말로 해석되기보다는 심상으로 그려진다. 예술 매체는 종종 심상의 표출을 자극하는, 즉 일차적 과정의 매체를 자극하여 창조적 과정으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아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방어이다. 우리는 어떤 다른 의사소통 양식보다 언어화시키는 작업에 숙달되어 있다. 미술은 비

51)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미술치료학회

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는다. 예상치 않았던 작품이 그림이나 조소에서 제작될 수 있는데 가끔 창작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미술치료의 가장 흥미 있는 잠재성 중의 하나이다. 예상치 않았던 인식은 가끔 환자의 통찰, 학습, 성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셋째,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즉시 얻을 수 있다. 미술의 바로 이런 측면이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예컨대, 환자가 만든 어떤 유형의 대상화를 통해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놓여진다. 저항적인 환자들의 경우는 환자를 직접 다루는 것보다 그들의 그림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다. 또한, 환자들의 감정이나 사고 등이 그림이나 조소와 같은 하나의 사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개인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 어떤 환자는 단 한 번의 작품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저항이 강한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넷째, 자료의 영속성을 들 수 있다. 미술 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며, 환자 자신도 이전에 만든 작품을 다시 보면서 당시의 자신의 감정을 회상하기도 한다. 즉, 그림이나 조소가 주관적인 기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작품 변화를 통하여 치료의 과정을 한 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지니고 있다. 언어는 일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서, 대체로 한 가지씩 순서대로 나간다. 이에 반해 미술 표현은 문법, 통사론, 논법 등의 언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즉,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것이며 시간적인 제한도 없다. 미술에서는 공간 속에서의 연관성들이 발생한다. 미술의 공간성은 바로 경험을 복제한 것이다.

여섯째, 미술은 창조성이 있으며 에너지를 유발시킨다. 미술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개인의 신체적 에너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미술 작업을 진행하고, 토론하며, 감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에는 대체로 활기찬 모습을 띠며, 체내의 에너지 정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의 발산이라고 해석된다. 연극이나 영화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미술치료는 하나의 작업이라기보다는 놀이와 레크레이션과 음악과 열정이 있는 창조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들을 지닌 미술치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미술치료는 다양한 상황에서 치료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미술 표현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작업을 통해서 환자로 하여금 통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미술치료의 목적이다. 따라서 위기치료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고, 양로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삶을 정리하는 데에도 미술치료가 도입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약물이나 알콜중독환자, 심신장애인 등에게도 확대되는 경향이다. 정신병원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미술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미술치료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병원이나 치료센터에 그치지 않고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사회 부적응이나 발달장애아 등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는 치료보다는 인격적 표현으로서의 미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교육과 치료의 거리는 가깝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에 있어서도 자기 탐색과 창조라는 인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 미술교육에서 강조하는 미술표현과는 다른 것으로서, 작품 그 자체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한 지역 내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방학 등의 시기를 이용한 미술치료기법 적용으로 친한 친구를 만들거나 기술 습득을 통해 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및 자기성장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일반적으로 학대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기의 아동보호 시설과 가출, 임신 등의 문제와 관련된 쉼터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의 미술치료는 시간적 제한성에 따르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술만이 가지는 표현의 제한성이 없다는 특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중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며, 미술작업 그 자체가 해독제 역할을 하고 피난처가 된다는 점이다. 물론 예술작업 자체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가능으로서의 모델로서 보조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작품결과는 용기와 성취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실제 상황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독립된 감정을 가지게 해 줄 것이다. 보호시설에 단기 입소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문제들은 세대간의 문제와 다양하게 얽혀있으므로 이들의 삶의 은유로서, 카타르시스의 도구로서, 제 2의 상처로의 예방으로서 위기개입으로서 미술치료의 임상접근은 치유의 깊이를 더해주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아픈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치료라는 관점에서 시행하는 것과 교육 및 인격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사용되는 미술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용어의 차이

에 지나지 않는 면이 많다. 이것은 상담과 심리 치료의 구분과도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든 훌륭한 치료들은 교육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고, 훌륭한 교육 또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다만 활용상의 차이에서 오는 일차적 구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술치료에서 행해지는 방식은, 특정 환자가 참여하게 되는 환경과 미술치료사가 행하는 이론적 접근방법, 기법에 대한 능력, 성격 유형 등이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치료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그 환경과 치료의 전체적인 구성방법은 달라야 한다. 나아가 교육적 목적을 더하고자 할 때도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미성숙한 인격적 특징을 미술치료교육을 통해 점차 전인적 성숙으로 유도해야 한다.

3. 치료 메커니즘

1) 미술치료의 효과

미술이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한편, 미술치료의 과정과 잠재성은 실제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인간이 성장하고 재활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활동의 제작과정을 통해서 자기개발과 보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치료방법인 것이다.

전형적인 미술실기 시간에는 모델을 그리거나 정물화를 그리거나 숲속을 거닐면서 야외스케치를 할 것이다. 대상을 자신이 본 대로 비례와 명암, 색채 등의 기술적인 표현 기교와 예술가적인 감각을 강조하면서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치료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것에 가깝다. 느낌, 생각, 상상 같은 자신의 내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미술치료가 미술 기교 또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강조하려는 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간혹 미술시간에 자신이 상상한 것을 그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미술치료에서 내면세계의 이미지나 사고를 중시하고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미술이 치료양식이라는 생각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치료’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therapia’에서 유래하였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술치료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우

선적으로 많은 경우에 숙련된 전문가들은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개인에 관심을 갖는다. 전문가의 도움은 치료과정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지(支持)적 상호관계는 과정상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 도와주고 미술 창작 경험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다른 중요한 면은 한 개인의 미술작품의 의미, 설명, 내용을 발견하게 하며, 미술작품에 개인적인 의미 부여와 자기 자신의 창작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술치료 만큼 개인의 능동적 참여에 의존하는 치료는 거의 없다.

(1) 그림해석

학생을 이해하는 심리적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52) 첫째는, 학생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한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해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학생 자신의 언어표현이나 구두보고를 토대로 해서 이해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일정한 지시와 함께 어떤 과제를 주거나 표현의 매체를 제공해 주고,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투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투사적 기법이 있다. 이러한 투사적 기법의 하나로 그림에 의한 심리 진단을 들 수 있는데, 진단적 도구로 활용되는 그림은 그 투사적 기능으로 인해 미술 분야 외에 심리학·교육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에서 선과 점은 심리적·생리적 에너지의 방출을 의미한다. 내적 긴장도·통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선의 압력·굵기·흐름·방향 및 운필의 길이 등은 자기 자신·자기주장·안정감·갈등의 정도를 나타내고, 강·약·딱딱하냐 부드러우냐 등으로 표현되는 선의 질은 내적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방법과 정서적 긴장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선의 형태는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나 갈등, 안정성의 정도를 표현한다.

나아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림 속에서 정서 생활의 성질이나 그 표출의 강도를 특히 잘 반영하는 것이 색채이다. 색채가 인간의 정서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임상적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색채는 감정적 표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색채에 강한 흥미를 보이거나 강한 특징이 있으면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선이나 형에 더 많은 관심

52) 金在恩, 「그림에 의한 兒童 心理診斷」, 教育科學社, 1976, p. 17

을 보이면 자기 방어의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⁵³⁾.

한편, 이미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이므로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혹은 그림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미술치료에 치료사로서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림에서 어떤 지표를 찾으려고 애쓰며, 내담자들 역시 자신들의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에 대해 흥미로워한다. 미술표현에 보편적인 상징이 있기는 하지만, 미술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이다. 개인적인 관점과 문화적 영향, 예전의 인생경험과 같은 독특한 자신만의 배경이 미술작품 제작에 배어나오게 된다. 만약 그림의 의미에 대해 내담자와 아무런 의견 교환 없이 미술치료과정에서 제작된 그림만을 본다면, 어느 한 부분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려 할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인상, 사고와 감정들을 자신이 보는 이미지에 투사⁵⁴⁾하여 전이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림은 이 투사적 기능으로 인하여 인간의 심리적인 면과 정신적인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진단적 도구로 보편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영옥은 정서부적응아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환경에 적응하는 정상아와 비교하여 그림 표현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⁵⁵⁾.

- ① 화선과 형태의 표현에 있어서, 정상아 집단은 일정한 직선·가로선·세로선·정확한 형태의 표현으로 안정된 경향과 자기통제력이 적절함을 보였지만 공격성 정서부적응아의 경우에는 강한 선·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선·사선·모난 선·정확하지 않은 형태의 반복이 많았다. 이는 내적 에너지의 강함·공격적인 특징·자기통제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② 색채의 표현에 있어서, 정상아 집단은 배색을 고려한 색채 사용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통제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조색의 조합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에 반해 공격성 정서부적응아의 경우에는 배색을 고려하지 않은 색채와 엉켜있는 색칠이 많이 나타났고 주조색의 조합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 검은색과 빨간색의 사용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이것은 통제력의 부족함·적개심·정서적 행동의 결핍·공격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③ 공간 구성의 표현에 있어서, 정상아 집단은 그림과 전체 화면이 관계된 공간을 이룬 표현이 많았는데, 적응을 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격성 정

53) 이영옥, 1990, [그림 분석을 통한 정서 부적응아의 심리적 특성 연구], p. 33

54) 투사: 자기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속성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거나, 또는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심리기전이다.

55) 이영옥, 상계논문

서부적응아의 경우에는 부분과 부분을 겹쳐 그린 표현과 화면 전체에 일부분만 가득 그린 표현이 많았다. 이는 안정감의 부족·자기과시욕의 강함을 의미한다.

④ 자유화에 나타난 내용 및 소재는 관심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그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정상아 집단은 인물·자연·과일과 꽃·집·동물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격성 정서부적응아의 경우에는 동물·인물·교통수단·유령·무지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상아 집단의 표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가정생활·가족관계·대인관계의 조화를 의미한다. 공격성 정서부적응아 집단의 표현은 두려움·불안감·대인관계·부모에 대한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카핏츠(Koppitz)는 공격적인 아동(31명)과 수줍음 타는 아동(31명)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였는데, 수줍음 타는 아동(지표 75개)보다 공격적인 아동(지표 90개)이 더 많은 지표를 보였다. 공격적인 아동에 의해 그려진 지표는 손발의 비대칭, 치아, 긴 팔, 큰 손, 그리고 잘려진 손이 포함되었다. 수줍음 타는 아동은 입을 자주 생략하였다⁵⁶⁾.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그림속의 표현에는 내적 요구, 충동, 갈등, 적응 등과 같은 심리적인 면들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성격의 표현, 숨겨진 마음의 표현, 욕구의 표현, 가족관계·대인관계의 표현, 더 나아가서는 문제행동의 표현까지도 그림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사적 도구로서의 그림해석은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신적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림 속에 자아개념, 환경에 대한 태도, 감정과 욕구, 흥미의 대상이 무엇이나 하는 것과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청소년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인 기능과 관련된 학습적인 가치를 갖게 할 수 있고, 표현의 과정이 자기 자료의 역할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시각적 사고와 표현

시각적 사고란 형상을 통해서 주변의 세계에 대한 개념과 사고, 감정을 구조화하는 능력과 경향을 말한다. 시각적 사고는 일상생활의 계획에서부터 밤에 꾸는 꿈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들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각적 참조를 사용

56) Koppitz, 1968, 유혜정, 「아동의 그림검사에 나타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1998, 개인용

한다. 예를 들어 “한 장의 그림은 천 마디 말과 같은 가치가 있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거나 혹은 색과 관련해서는 “그녀는 질투가 심했다. She was green with envy.”, “나는 우울하다. I have the blues.”, 또 “그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다. He looks at the world through rose-colored glasses.”와 같은 상투적인 문구가 익숙하게 사용된다. 이처럼 우리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주변 세상을 표현하고 그것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며,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색채적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프로이드는 꿈과 감정,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이 꿈을 묘사할 수 있고 인간의 시각적 개념은 언어적 표현능력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미술이 무의식과 보다 근접해 있다고 하였다. 미술과 꿈의 시각적 상징에 관심이 많았던 칼 융(Carl Jung) 또한 치료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문제 혹은 기분을 구체화하거나 꿈을 그림으로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된 감정을 경험하고 보다 깊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심리적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꿈이나 기억의 이미지가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주목하는 점에서 융의 철학은 심리치료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외상의 경험이 이미지로 마음속에 기호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천재지변이나 폭력적인 행동과 같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카메라가 사진을 찍듯이 그 사건을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들이 이미지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시각예술은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무의식을 끌어내어 외상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는 독특한 방법인 것이다.

미술활동이라는 시각적 언어는 의사소통으로는 익숙지 않은 방법이라서 자신을 쉽게 숨길 수 없다. 따라서 미술은 어려운 인생경험과 콤플렉스를 표현하는 안전한 방법이 된다. 언어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미술표현 같은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은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표출구가 된다. 결과적으로 미술활동의 이러한 가치는 무의식과 표출되지 않은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학대와 외상에 대한 기억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초기에는 그림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미술은 언어로써 명료화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면서 무의식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미술표현은 단선적 과정이 아니므로 맞춤법이나 논리, 문법, 구분법 등의 언어법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갈등을 표현할 수 있다. 미술치료사 해리어트 웨이드슨(Harriet Wadeson)은 이를 미술의 동시표현성, 복합공간구조라고 불렀다. 이는 공간, 색, 그리고 선을 이용하여 상호관계를 표현하려는 미술의 능력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관련성을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관련성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른 시간, 다른 장소, 가족 간의 연관관계가 그림 속에서 쉽게 묘사된다. 언어로 설명하려면 여러 단락이 필요한 내용이 한 장의 그림으로 더 쉽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와는 달리 미술은 구조나 조직을 위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그림 안에서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상반되는 요소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 모순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미술의 이러한 능력은 갈등의 경험과 감정을 종합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미술치료는 특히 어린 아동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을 포괄적으로 언어화하지는 못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자연스런 방법의 하나로서 미술에 대해 대체로 편안함을 갖기 때문이다.

(3) 감정적 해방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아닌, 순수한 조형요소들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색이 입혀졌는가에 따라 이상하게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정적’이라는 말을 내뱉게 하는 그림이 있다. 화면에 붓을 대는 순간 가지는 그 감정이 색으로든 선으로든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는 말이다. 동시에 그림을 그린 이는 나름의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데, 작업이 끝나면 매우 평온하며 고요한 상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린 후 개인적으로 간직했던 어떤 충격에 대해 그것이 사그라지면서 편안해지기까지의 마음, 즉 카타르시스(catharsis) 후에 일어나는 감정적 변화를 느낀다.

이러한 면에서 미술치료는 감정을 해소하기에 효과적이다. 카타르시스는 글자 그대로 ‘순화, 정화, 배설’을 의미한다. 치료에서 이는 고통을 덜기 위해 강렬한 감정을 방출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그 외의 여러 형태의 미술작업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안도감을 주는 정화를 가능하게 한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미술로 표현

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자신의 이미지 속에서 무언가 표현하려는 것, 즉 외상적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감정의 정화인 것이다.

또한 미술작품을 제작하면 기분을 환기시키고 이완시키는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두려움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창조적인 활동은, 부족시 우울한 감정과 화학적인 관련이 있는 뇌의 세로토닌⁵⁷⁾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들은 미술표현을 통해서 내적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한 명상처럼 미술을 경험한다고 한다.

미학에서 다루어지는 카타르시스 이론은 음악과 시 등에서 감정 및 상상력이 이성을 압도하는 어떤 상태와 충격을 낳으면서, 마음속에 격렬하고 이질적인 감정들을 일으킨다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강렬한 체험이-특히 연민과 공포의 체험들- 감정을 해방시킨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시와 음악이 제공하는 즐거움의 원천은 그런 감정들 자체가 아니고 그런 감정들의 이완이라는 것이다⁵⁸⁾.

(4) 작품의 창작과 승화

미술활동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구성하고, 배열하고, 혼합하면서, 물성을 느끼며 만지게 되고, 구조를 만들고, 풀칠하고, 붙이고, 색칠하고, 형태를 완성하는 유형의 경험들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다. 엘렌 디셔냐키(Ellen Dissanayake)는 『무엇을 위한 예술인가?(What Is Art For?)』에서 미술활동은 독특하고 특별한 물건을 만들고 손으로 물건을 창조하는 자연스러운 관심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⁵⁹⁾. 미술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진정한 성향과 욕구인 ‘특별한 것을 만들어’ 장식하고 꾸미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바로 ‘특별한 것을 만드는’ 시각적인 방법인 동시에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것이다.

미술치료는 아마도 형태가 있는 작품을 창조하는 몇 안 되는 치료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느낌이나 경험 혹은 의미들을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에서 찾을 수 있는 영구적인 가치는 생각과 개념이 다른 이미지들과 비교되고 나중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명백한 효과가 있다.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에 걸쳐 작업

57) 세로토닌(serotonin):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으로 이 물질의 부족이나 수용체의 이상이 우울증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58) 타타르키비츠, 『미학의 기본개념사』, 미술문화, 1999, p.125

59) 피터 런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미술』, 재인용

한 미술표현을 되돌아보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한 사람에게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와 사건, 느낌 그리고 생각의 양식과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술치료는 순수하게 여가활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고 독특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창조과정은 명백한 치료의 장점을 가진 효과적인 경험이다. 자신의 상상을 통해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창작을 한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며, 미술활동은 우리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다룰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그림으로 긍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음식, 집, 그리고 안전-가 만족되었을 때, 인간은 자기표현을 위한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 욕구를 빼앗겼을 때조차도 미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애쓴 경우도 있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내면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변형하는 방법의 하나로 미술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를 비롯한 여러 유명한 화가들의 창작 작업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화가들은 초월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갈등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 하며, 인간의 고통을 탐구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을 이용해 왔다. 이렇듯 미술은 우리의 공포, 두려움과 같은 힘겨운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또한 영혼과 정신을 어루만져 주기도 한다. 가족과 일 그리고 인생을 통해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미술활동과 같은 창조적 경험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활동에서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여러 부분들을 통합시키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치료사 부루스 문(Bruce Moon)은 미술활동이 무의미함과 약물중독, 학대, 역기능적인 관계, 권태로 가득 찬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실존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즉 미술활동은 정신적 상실감과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공허감과 같은 느낌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오히려 개인적인 만족감 획득,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미술작품)에 대한 완성, 그리고 진정한 관계(예를 들어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고양된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Rollo May)는 균형, 미, 조화, 우아함이 시각미술이 가진 많은 가치들 중 일부라고 하였다. 그는 미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고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예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하여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고 하였다. 즉 창작과정은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인간의 충만한 잠재력으로 도달하는 과정, 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활동은 활기를 띠게 하고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흥미 넘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더 활기차고 즐거워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미술활동으로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직관을 갖게 되며 자아실현을 이루고 좀 더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표현방법과 새로운 생각을 탐구하게 된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즐거움과 놀이와 창작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며, 미술활동이 이러한 경험들을 제공하게 된다. 바로, 미술과 치료의 접점에서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예술의 조화는 부조화의 단순한 제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긴장의 통합과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복잡한 내재력의 균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조화가 곧 정신분석 용어로는 승화의 과정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 딜레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에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원시적 감정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생존은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와 적응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의 움직임은 결국 인간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며 본능적 욕구의 만족은 인간의 근본적 쾌락의 원천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욕구가 언제 만족되며, 언제 그 실현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결정하는 본능적인 억제 수단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욕구의 움직임은 위험한 것이 된다.

자아는 현실 인지와 현실 조작, 만족지연, 성격의 내적 통일이라고 하는 모든 고도의 정신 기능을 담당한다. 결국, 근원적으로 충동적인, 본능적 욕구는 자아의 노력에 의해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이 성숙함에 따라 초자아가 아닌 강제력이나 금지력은 인간 이외의 종류의 사회적 행동을 지배하는 본능적 억제 수단의 확실성에는 달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행동을 보다 예측하려고 하며,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움직인다.

자아는 여러 복합기제는 물론 단일 기제(예컨대, 억제의 보조가 없는 충동의 통제, 위협의 회피, 불안방지, 만족의 획득)에 대해서도 서로 모순된 과제

를 완수할 수 없다. 여러 기제가운데서 승화는 욕구의 위협과 잠재적 파괴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그것은 욕구의 움직임의 에너지를 그 본래의 목표로부터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서, 성취하는 방향으로 옮겨 놓은 과정이다. 그 성취라는 것은 자아에 있어서 상당히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그것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욕구의 움직임이 원시적 형태의 단일 성격적인 것은 승화를 통해서 수정된다. 따라서 에너지를 유아기 같거나 원시적 욕구의 좁은 사이클 행동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자아력이나 자율성이 점차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원 본능에서 자아로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며, 공격적 에너지 및 본능적 에너지가 중성화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승화의 특성은 대응적인 생활이 제공하는 순수한 기쁨이다.

실제로 사회적 성취는 승화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애정 상실이나 거세불안에 의해 사회적으로 추종이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두려움은 승화 쪽 보다는 신경증적 방어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승화는 본능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사이의 갈등을 통합하는 다른 방어기제보다는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승화는 자아력을 증가시키지만 신경증적 방어는 활용 가능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인간은 각자 승화를 쉽게 행할 수 있는 영역이며, 어떤 아동은 아주 작은 용기만으로도 승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아동은 최적의 조건에서조차도 승화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행위나 정서의 성질을 바꾸지 않고 그것들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적응기제의 하나로서 생활 속에서의 안정을 얻기 위해 사용하게 된다.

전위(displacement)는 본능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활동이 아니고 대안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기본적인 성적, 공격적 욕구를 직접 방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전혀 방출할 수 없다면 견디기 힘든 욕구불만이 생긴다. 이때 전위를 통해서 직접 그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예컨대, 분노를 표출시킬 때 상대방을 치는 대신에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림으로써 분노를 발산시킨다. 또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러한 전위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거나 유익한 활동이 나타날 때 이를 승화라 할 수 있다⁶⁰).

공격성 아동을 다루는 정신치료사는 아동 자신이나 다른 환자 등에게 위협이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의감을 표출할 수 있도록 놀이방에 각종게임이나 공던지기, 화살던지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이것만을 승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대상의 변화, 목표의 변화, 에너지특성의 변화가 요구된다.

2) 개입시기와 강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 개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청소년 문제의 치료적인 개입시기를 ‘위기개입’이라 한다. 위기개입이란 일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개인이나 가족의 발달단계에서 유발되는 혼란이나 불균형 상태로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적용하는 치료과정을 의미한다. 흔히 다루게 되는 청소년의 위기개입은 급성기 정신문제, 알콜 및 약물문제, 자살, 가출, 학대 등 급박한 상황에서 실시되며, 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기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입원을 통한 위기개입이 이뤄지기도 한다. 위기개입의 목표는 청소년의 근심, 공포감, 심리적, 신체적 증상 등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지금 여기’의 청소년 개인행동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가능한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여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야 한다. 문제의 촉진적 요인이 무엇인지, 청소년이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위기문제의 배경이 되는 이슈들이 있는지,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과 감정, 심리적, 신체적 증상, 인지적 기능, 관계 등의 평가가 다뤄짐으로써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기상이 매우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기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치료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청소년을 적극 참여시켜 지지적이고 신속하되 의존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극함으로써 자립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성공 지향적이고 실망감을 주지 않으며 보상적이어야 한다.

미술치료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차원의 위기경험의 평가와 치료적 경험을 하게하고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이차적 징후를 일으

60) 이영만 · 유병관, 1991,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미술치료학회, 동아문화사, 재인용

킬 수 있는 것들까지를 예방하여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미술치료 접근방법이 그러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기 개입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상경험은 단 한 번의 사건이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든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테면 특정 행동이나 감정, 육체적 감각,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불행하게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견뎌낸 삶과 비슷한 환경을 재창조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재창조된 환경 속에서 다시금 외상을 입게 되는데, 그 환경 속의 요인들이 최초로 외상을 입었던 환경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외상을 재경험하는 것을 막고 치료과정을 조절하도록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법으로는 ‘보유’와 ‘속도 조절하기’를 들 수 있다⁶¹⁾.

보유란 원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생각, 느낌, 이미지, 감각 등을 제어하도록 하는 자기지시적인 능력이다. 보유 기법은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나 느낌을 저장해두었다가 나중에 안전하게 되돌아보게끔 도와주는 것으로 또한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속도 조절하기 기법과 더불어 이는 매우 중요한 자기관리기술이다. 단 보유를 회피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보유는 외상적 사건을 보다 더 강인하고 확고하게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차분한 방식으로 외상적 사건과 반응을 다루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속도 조절하기이다. 속도 조절하기는 치료 결과가 최적으로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언제 다루어야 되는지 그 속도와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회복 작업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또한 고통이 변화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외상을 회복하는 과정은 말로 표현하기 매우 어려워서 그림이 훨씬 더 잘 표현해주기도 한다. 회복은, 사람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활동적이며 창조적인 변형과정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어만으로는 이런 과정에 이를 수 없다. 미술을 통한 달리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행동 내면에 있는 청소년의 욕구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

61) Barry Cohen, Mary-Michola Barnes, & Anita B. Rankin, 『상처입은 마음의 성형-스물여섯가지 미술치료의 길 Managing Traumatic Stress Through Art』, 도서출판 KATC, 2003

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개인차가 있으며, 누구나 나름대로의 개성과 능력이 있으므로,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며, 인간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갖고, 인내심을 갖도록 한다. 청소년과 성인간의 차이 역시 지나치게 크게 확대하여 문제 삼지 않도록 하며, 차이를 부정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IV. 미술치료의 교육적 적용

1. 정서순화를 위한 심리치료적 관점

20세기에 들어와서 미술교육은 조형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료적 방향의 모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로부터 아동화가 미술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와 의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교육적 관점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표현력 향상에 더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미국의 미술교육자인 코헨(Cohen)과 게이너(Gainer)는 미술교육에서 미술 활동과정을 통한 아동들의 표현과 그들의 사고와 정서 및 감정을 중요시하였다. 이들 미술교육자들은 아동들의 미술적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⁶²⁾. 이러한 점은 미술교육과 교수법에 있어서 미술의 치료적 관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루빈(Rubin)도 아동과 청소년의 미술치료에는 미술교육의 요소가 들어있으며, 여기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이차적 목적이 되고 치료가 일차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⁶³⁾. 다시 말해서 미술치료사가 기법을 가르친다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더 적절한 감정표현을 할 수 있거나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루빈에 의하면 가장 훌륭한 미술교사는 조형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증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술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한 부면으로 지금 우리 교육의 커다란 문제인 기초도덕의 붕괴와 이기주의적 성향의 만연에 따른 청소년 문제에 적용 가능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새로운 경향으로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교육자이며 표현화가인 슈테른(Stern)의 표현회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슈테른은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심리적 방법, 예를 들어 아동화의 심리진단에 불만을 나타내어, 아동의 창의적 표현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개발한 미술표현을 위한 아틀리에인 ‘보호공간’, 즉 미술활동의 공간

62) 코헨·게이너, 1992,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재인용

63) Rubin, 1999, 상계서, 재인용

은 참여자가 의사소통과 자신의 미술 활동범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장을 하며, 개인의 착상과 영감을 미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⁴⁾. 슈테른에게 있어서 그림이란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표현화이다. 이러한 표현화의 목적은 창의성을 장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완성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상승시키는 것과 어떤 경쟁심도 없이 잃어버린 균형을 찾는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미적 의사표시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ie)의 창시자인 슈타이너(Steiner)의 세계관에 기초한 미술치료도 교육적 미술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저서 『교육은 치료다』에서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본질과 그 진단 기준 등에 대해, 그리고 왜 치료교육이 필요한지,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교육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독특하며 세계관이 뚜렷한 그의 개념들과 체계는 육체, 에테르체⁶⁵⁾, 아스트랄체⁶⁶⁾, 자아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앞에서 설명된 개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사례에 맞는 구체적인 치료법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독특한 세계관이 다른 이론이나 체계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현실과의 통합도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즉 특정한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독단적인 태도가 되기 쉽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인지학적 관점은 미술치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의 역할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퀴켈하우스(Kükelhaus)는 괴테(Goethe)와 슈타이너와 슈테른과 에거의 논점을 바탕으로 하여, 미술교육이 인간의 통일체적 관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점을 개발하기 위하여 퀴켈하우스는 감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미술교육이 보는 것, 걷는 것, 듣는 것, 나아가 삶 자체에 대한 모험을 하며, 그러한 것을 수용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고 주장한다⁶⁷⁾. 이는 바로 감각을 계발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에게 있어서 미술활동은 바로 감각교육을 계발하는 ‘경험의 장(Erfahrungsfeld)’이 된다.

64) Bachmann, 1993, 상계서, 재인용

65) 생명체(life body). 생물 속의 생명의 형성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작용을 말한다. 동양의 기(氣)에 해당하는 신지학의 용어로 신체, 아스트랄체, 자아와 함께 인간존재의 네 가지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은 치료다』, 물병자리, 2001, p.20 각주 재인용.

66) 감정체(Astral body). 인간이나 동물에 있어 지각, 정동, 의식, 충동, 열망, 열정 등을 생기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念)의 작용. 감각 및 감정의 전달자로 감정체(sentient body)라고도 부른다.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은 치료다』, 물병자리, 2001, p. 49 각주 재인용.

67) Menzen, 1994, 정여주, 전계서

퀴켈하우스에 의하면 인간은 감각을 통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교육에서 감각계발을 위한 적절한 경험의 장이 없으면, 정상적 인간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구미에서 미술교사 및 상담교사들이 미술을 통한 치료적 관심과 필요성 때문에 교원연수 및 보수교육의 기회와 대학의 미술치료학과에서 미술치료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교원연수에서 점차적으로 미술치료과목이 도입되고 있다. 근래에 공교육기관의 현직 미술교사들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에서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기존의 미술교육 외에도 미술을 통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술교사들은 미술치료연수나 교육과정 등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교육 기관의 미술교사들에 의하면 부모들도 자녀가 기능적인 미술기법의 훈련이 아닌 미술을 통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바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의 문제 양상들인 공격성, 학교 및 시험에 대한 불안감, 우울한 감정에 따른 미술치료의 적용⁶⁸⁾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공격성

공격성이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이다. 여기에는 손상이나 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사람이나 물건에 해를 입혀 상대방을 약하게 하거나 불안을 유발시키는 행위들이 있다.

공격성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공격성의 원인 규명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격성의 원인에는 잘못된 교육, 불안과 좌절, 자아실현의 결여, 불만족한 생활 조건, 대중매체의 폭력사례, 정치적 상황, 사회적 가치관, 다른 방법보다 쉬운 방법, 본능적 충동 등이 있다. 이러한 공격성에 대한 해결방안은 공격성에 대한 연구만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은 양질의 교육,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과 모험적 환경 제시, 좌절감이나 부정

68) Myschker,1999; Trapmann,1997; kobi, Teunissen, 1980, etc

적 감정 또는 고집을 조심스럽게 다룸, 공격성에 대한 정보와 의식화, 생활조건
의 개선 등이 있다.

미술수업 안에서는 상상과 환상여행, 점토활동(던지기, 반죽하기, 밀기, 찢
기, 주무르기, 진흙놀이 등), 동작과 음악을 이용한 그림그리기, 핑거페인팅,
물감뿌리기, 신문 찢기와 종이죽 작업, 콜라주, 인조 대리석이나 단단한 미술
재료를 통한 조형작업 등의 기법활용이 적용 가능하다. 활발하며 에너지 넘치
는 이 활동들은 청소년에게 내·외적으로 작용하여 공격성을 전환 해 줄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⁶⁹⁾.

또한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도 공격성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데 미술교육
을 통한 자아개념 형성은 다음 절에 다루기로 한다.

(2) 과도불안

과도불안에는 죽음, 질병, 재해 등의 실존불안과 사회적 불안·시험, 학교,
직업, 성(性) 등의 능력불안·자기발전과 자기 실현과 자발성을 위한 노력 감
소 등이 있다.

이상의 원인으로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불충분한 보호(호스피탈리즘), 불안
조성, 종교적 내용의 남용, 과도한 윤리적·도덕적 요구, 그릇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불안이 야기된다. 부모와 교사는 사랑과 애정을 통한 적극
적 표현으로 피부접촉을 많이 해주고, 아이다운 욕구를 충족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으로 하여금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를 수집
하며, 기습적 행동이나 발언삼가, 사전에 불안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

미술수업에서는 불안을 직접 그려보거나(초기), 불안과 관련된 감정들 그리
기,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그리기, 바뀌가며 그리기, 그림을 통한 싸움(난화
기법), 자연물 매체와 입체적 매체의 활용, 만다라 그리기, 신체 그리기, 천과
숨을 이용한 활동(인형 및 장난감 만들기 등), 동작치료와 함께 하기(신체조절
연습, 균형잡기 연습), 상상여행을 통한 그림 그리기(상상과 그림과 동작), 어
두운 곳에서 손을 잡고 놀기 연습과 그러한 경험을 즉흥적으로 그리기를 할
수 있다.

(3)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외상이나 위기, 상실로 인한 감정은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언어로 그

69)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러한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은 단어와 연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마음속에 숨겨두어 우울함이나 혼란, 불안, 절망, 좌절 등을 초래한다. 미술작품의 제작과정은 사람들이 감정에 맞서고, 우울증을 극복하며, 외상의 경험을 통합하고, 슬픔과 상실을 경감시키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⁷⁰⁾

이러한 의미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감정저널 그리기 : 사용하고 싶은 드로잉 재료와 스케치북을 선택하여 ‘나는 오늘 어떻게 느끼지?’ 하고 학생에게 물어본다. 단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단순한 형태와 색깔을 그려보도록 하여 자기감정을 탐색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공격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자기 존중감이 향상된다.
- 안정감을 주는 의미의 책 만들기 : 소리나 음악, 맛 또는 향기, 촉각적 느낌이나 질감, 나를 평화롭게 하고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한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그 목록으로 잡지나 콜라주 재료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고 겉표지를 달아서 책으로 만든다. 이것은 자신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며 상실 및 외상의 표현을 유도한다.
- 안전한 장소 만들기 : 현실이건 상상이건, 일생 동안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들을 모두 생각해본다. 안전한 장소의 특징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 미술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를 그려봄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안전한 정신적 이미지를 발견한다.
- 감정지도 그리기 : 분노, 기쁨, 슬픔, 공포, 타인의 사랑, 자기에 등 각각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른 색을 사용하여 그린다. 각 감정의 영역을 표시해보고 크기도 생각해보게 하여 감정을 탐색하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2. 자아개념 형성과 자기표현

앞서 다룬 청소년문제의 개인적 요인에는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력이 다루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미술을 통한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형성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증진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작품의 창작은 또한 청소년의 가치관에 직접 작용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면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70) 캐시 A. 말키오디, 『미술치료』, 조형교육, 2000

뒤샹(Duchamp)은 자기 작업을 통해 모든 인간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은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인간에 잠재하는 예술적 발전의 가능성을 장려하였다. 즉 그는 예술을 일상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뒤샹은,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창의적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힘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몬드리안(Mondrian)의 관점과도 유사하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존 미술양식에 추가될 또 다른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삶의 내부로 흡수시키고, 그로 인해 보통사람들 하나하나의 삶 자체가 예술작품이 되는 순간 예술자신은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⁷¹⁾이었다. 특별한 재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통사람들도 예술을 향유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전위화가 보이스(Beuys)는, 예술은 모든 인간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급진적이고 도전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다”⁷²⁾라고 단언함으로써 예술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창의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예술에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그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은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차이를 좁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인간은 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한다. 보이스는 인간이 지닌 창의성을 기반으로 모든 이의 예술적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라 “예술은 바로 치료이다(Kunst ist ja Therapie.)”⁷³⁾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는 예술과 치료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예술을 치료와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예술을 치료에 연결시키려 한 보이스의 시도에서 인간은 예술을 통하여 자신을 통찰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며, 사회적 활동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치료사로서의 예술가가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예술에 대한 그의 교육적, 사회적 요구이다. 예술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미적 활동이 치료를 동반하게 된다. 자신이 창작자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71) L. 페리에, 『20세기 미술의 모험』, API, 1993, p.428

72) Beuys, 1991, 정여주, 전계서, 재인용

73) Beuys, 1991, 정여주, 전계서

(1) 자아개념을 위한 프로그램

자아개념이란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가 하는 개인의 개념을 뜻한다. 자아개념을 위한 미술치료는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상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특히 미술활동의 주체가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자기통찰의 기회를 줄 수 있다.⁷⁴⁾

자아개념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자화상 : 자기정서를 이해하고 자기 동기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자소상 : 눈을 감고 한 손으로 얼굴을 더듬고 다른 손으로 찰흙을 빚어 자소상을 만든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다.
- 이름 꾸미기 : 자신의 이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상징적으로 묘하여 자기 동기화 및 표현력을 강화하고 감정의 이완을 꾀한다.
- 광고지 만들기 : 잡지나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을 광고하는 광고지를 만든다.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기표현의 성취감을 기대할 수 있다.
- 가면 만들기 : 도화지에 자유로운 형태로 자신이 갖고 싶은 얼굴의 가면을 만든다. 역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기표현의 성취감을 기대할 수 있다.
- 내 마음의 동그라미 : 동그라미 속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것은 분열된 자아의 통합과 삶의 본질의 파악, 그리고 자기이해의 기대효과가 있다.
- 인생 콜라주 :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물이 하는 말을 상상하여 써 본다. 이것은 관심분야를 파악하게 하고 긍정적 미래 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 나의 안과 밖 : 빈 상자를 이용하여 밖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안은 내가 보는 '나'를 표현한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새롭게 지각하고 정립해 나갈 수 있다.

수업에 임하는 모든 학생들은 교사로 하여금 예술가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도록 격려 받을 수 있다. 미술교사는 그들에게 모험을 하기를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성공적으로 미술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자기표현 훈련

현대에 들어와서 완성된 작품보다 행위의 장(場)에서의 표현자체를 중요시

74) 한국미술치료학회, 전게서, pp119~124

하는 폴록(Pollock)으로 대표되는 행위 예술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액션페인팅은 인간의 무의식을 통하여 표현되는 작업과정을 중요시하는데 바로 이 점이 미술치료의 관점과 일치한다. 행위자 자체가 그림의 매개체가 되어 즉흥적인 표현을 통하여 직접적이고 깊은 감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무의식과 창의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대 미술가들은 아동 미술, 원시인들의 미술, 정신병 환자들 그림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미술가들이 이러한 미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전문적 영역은 더 인간적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미술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간이 물질화, 기계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예술이 인간을 위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유적 기능도 함께 고찰하게 된 것이다.

- 기운생동 표출을 위한 드로잉수업

: 기운생동의 개념은 ‘생동감을 띤 정신의 반향 혹은 진동과, 그 결과로 인한 생명의 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⁷⁵⁾. 일반적이며 서구적인 드로잉수업⁷⁶⁾이 아닌 동양적인 차원의 소묘⁷⁷⁾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중등 미술교육 현장에서의 수업은 비교적 추상적인 이해의 폭이 깊은 학생들에게 선이라는 기본조형요소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감정에 대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될 수 있으며 그 색이 명료하지 않다고 해서 드로잉으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액션페인팅은 그 효과와 재미는 가시적일지 모르지만 좁은 교실 안에서 활동적인 페인팅 수업을 하려면 학생들이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는 물론 수업 내내 교실 벽이 오염될 걱정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75) 서성록, 『동서양미술의 지평』, 도서출판 재원, 1999, p.123

76) 선을 위주로 하여 그리는 행위로서, 밑그림, 즉 초벌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펜이나 연필, 크레용 등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회화적 장르와도 구별하기 힘든 방법적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최병식, 드로잉대전 上·下, 서울: 한국미술연감사, 1987, p. 10.)

77) 소묘란 말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통용되어지는 것인데 ‘그린다’는 뜻인 화(畵)의 어원에서 “한문의 화(畵, 畵)자는 그림(명사), 그린다(동사)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화라는 글자는 손(手)이 도구를 붙잡고서 받의 4개의 경계를 긋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긋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素)와 묘(描)라는 두 낱말은 묵선으로 이루어지는 단색화인 백묘화와 관련있는 말인데, 백묘화는 색채적 끝맺음을 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 하회와 채색의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선 자체로서의 완결을 뜻하는 소묘로 구분되어진다. 백묘의 백(白)은 여백으로서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색, 화가의 본질, 즉 인격적 바탕으로 풀이되며, 묘(描)는 먹선에서의 흑의 색채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素)는 작화중의 공기를 연상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순수한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무채색으로 이해할 수 있다.(백운영, 구성주의 학습원리를 적용한 드로잉학습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9. 개인용)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도 동양적 선묘 수업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통합적 관점

통합적 미술치료는 조형예술에 다른 예술형태들, 예를 들어 시, 음악, 무용, 연극, 인형극, 팬터마임 등을 치료에 상호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미술치료가 다른 예술형태 및 매체와의 결합을 통하여 환자에게 다양한 미적 경험을 제시하고, 그들의 감정과 감각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치료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치료에 ‘통합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연극과 관련하여 음악, 의상, 무대그림, 각본 등의 다른 영역의 예술이 함께 이루어지는 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1970년대 초 유럽에서 ‘창의적 매체를 통한 치료’, ‘통합적 예술치료와 창의성 치료’라는 개념의 예술치료 형태로 정착되었다.

통합적 예술치료는 무엇보다 독일의 『통합적 치료, 게슈탈트 치료와 창의성 장려를 위한 프리프 퍼얼스 연구서(EPI)』⁷⁸⁾에서 30여 년 전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예술치료는 육체적-정신적-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정체성에 근거한 심리치료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소의 대표인 페츨트는 예술치료를 상위개념으로 두고, 미술, 음악, 춤, 동작, 드라마, 시 등의 예술들을 치료에 적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예술 치료는 병의 치유와 완화, 인성계발과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적 미술치료에는 다른 미술치료적 관점처럼 조형매체를 사용하면서, 치료과정에 다양한 예술 형태를 도입하고 결합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심리 드라마와 미술치료, 동화와 미술치료, 심상치료와 미술치료, 미술과 비디오그래픽 작업, 춤과 미술치료, 음악과 미술치료 등이 있다.

다음은 통합적 미술치료의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⁷⁹⁾.

(1) 심리드라마와 미술치료

통합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치료 회기의 기본으로 즉흥적 연기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회기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즉흥연기와 미술활동이다. 초

78) 상계서

79) Schiefer, 1997, 상계서, 재인용

기 단계는 미술치료의 과정에 집중하기 위하여 심리극에서 나온 즉흥극 연습을 시도한다. 이 단계의 처음에는 신체이완 연습을 하는데, 여기에 유희적 동작을 겸비한다. 예를 들어 곰처럼 걷기, 캥거루처럼 뛰기, 뱀처럼 소리나지 않게 살금살금 걷기 등을 한다. 초기의 둘째 단계에서는 상상여행에 해당하는 연습을 놀이처럼 한다. 즉 치료사가 짧은 동화나 이야기를 낭독하거나 들려주면, 집단원 중에 몇 명이 그 내용을 연극으로 표현한다.

미술 활동 단계에서는 동화와 연극을 본 후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주로 약 30분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치료사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들을 말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2) 동화와 미술치료

동화를 통한 미술치료는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 적절하게 적용되는 치료형태이다. 동화, 특히 전래동화는 한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상징적, 우화적 혹은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동화는 인생의 변화, 위기, 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동화를 미술치료에 결합하는 것은 동화가 지니고 있는 내적 심상과 판타지를 그림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⁸⁰⁾. 이러한 동화-미술치료의 과정은 이완과정, 치료사가 동화 들려주기, 동화에 대한 느낌 나누기, 인상적 부분의 동화내용 그리기, 그림에 대한 대화 나누기로 이루어진다. 환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무의식에 있던 불안, 갈등, 소망 등을 의식하고 대면하게 된다.

4. 교수 방법적 관점

앞서 살펴본 방법론적인 접근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교육과정학에서는 전통주의와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적 배경을 통해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발전시켜 왔다. 교육과정의 개발은 절차에 따라 순서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실제로 교육 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참여 집단

80) 정여주, 2000

들의 정보와 지식의 한계를 잘 반영하며,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절충의 산물임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아이스너(Eisner)는 1960년대 행동적 교육목표와 전통적 학문교과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학교 교육과정의 풍토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질적 연구양식을 개발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예술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질적인 형태로 조합시켜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법을 창안해 냈다⁸¹⁾. 그가 제시한 교육목표에는 명백한 교육목표뿐만 아니라 잘 정의되지 않은 목표도 고려하고 있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습기회를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활동으로 변형하고 다양한 교과들 사이를 꿰뚫는 내용의 조직을 강조한다. 아이스너는 이러한 교사의 업무를 “거미줄을 치는 작업”으로 비유한다. 이러한 아이스너의 접근법은 일반적인 지침만을 제공하여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⁸²⁾. 그러나 미술치료적 효과를 기대하는 수업설계에 대해 숙의해야 할 교사들로서는 교수방법 및 목표의 설정을 할 때 이러한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는 수업의 설계이다. 미술교육은 학생들 전체에게 미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며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미술의 발전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이에 따라 미술교육에서는 수업에 대한 계획안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짜여진다. 이에 비해 미술치료적 목표를 함께하는 수업과정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한다. 교사 혹은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술적 기법이나 숙련을 위한 지도나 평가를 우선하기보다, 그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미술로 표현하는 것과 그러한 과정이 중요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미술작업에 대한 과도한 칭찬이나 질책 등도 삼가며, 작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1) 교육적 미술치료의 단기계획 모델⁸³⁾

아동과 청소년의 미술치료에서는 교육적 관점을 간과하지 않고 미술치료를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는 치료적 관

81) Eisner, 『교육적 상상력(The Educational Imagination)』, 1979

82) 홍후조,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문음사, 2002, p.264

83) 이어지는 단기 및 장기계획모델은 정여주의 『미술치료의 이해-이론과 실제』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점에서 미술활동이 일반수업과 더불어 주기간과 장기간의 계획으로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리히터(Richter)는 교육적 미술치료에서 감각운동영역, 인지영역, 사회-정서영역에서의 장애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하지 않고는, 미적 주제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⁴⁾. 그의 견해에 의하면 교육적 미술치료의 목적은 미적 영역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일반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치료의 출발점과 목표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출발단계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보이는 실제 상태는 비교적 분명하게 작성해야 하는 반면, 목표점은 의무사항으로 계획하고 받아들일 뿐이며, 항상 변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계획과 더불어 중간계획과 장기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리히터가 모델로 제안한 단기계획도식은 특수교육적 원칙, 즉 단순성, 구체적 지시세우기, 개별화 등을 따르고 있다. 아래에서 위로 제시한 단기계획 도식은 먼저 도입과제로서 동기유발과 아동 및 청소년의 현재의 표현 형태와 의사소통형태에 대한 점검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진단과 치료계획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에 서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개인에게 행동하는 장애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이들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미술치료과정에서는 도식에서 보여준 변이사항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치료사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적절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리히터의 도식에 따르면 치료적 조처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전체적 과제제시에 합류해야 된다. 한 곳으로 모여진 상황-이 도식에서 가장 상위의 위치-에서 작업으로 나타난 표현구조와 의사 전달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은 다음 단계의 주제 제시를 고려하는 데 기초가 된다.

(2) 교육적 미술치료의 장기계획모델

토이니센(Theunissen)은 행동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미술교육 커리큘럼을 통하여 교육적 미술치료의 관점에 입각한 장기적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다⁸⁵⁾. 이는 행동장애아동을 프로그램모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술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전체에게 적용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는 이 모델에서 장기적 프로그램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단계, 개발 단계, 안정화 단계, 분화

84) Richter, 1984

85) Theunissenm, 1980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계들은 반드시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여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그는 개인마다 다다를 수 있는 단계에 대한 시간적 차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토이니센의 장기계획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⁶⁾. 첫째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치료사와 내담자가 정서적 접촉을 하며 서로를 사귀고 수용하는 시기이다. 치료의 초기단계에서는 춤추기, 노래하기, 산책하기, 등산하기, 풍선 만들기, 연 만들어 날리기, 모래놀이, 요리하기, 이야기/동화 들려주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미적 활동에 대한 특별한 계획보다는 관계형성을 이루는 활동들이 더 우선된다.

둘째 단계는 개발단계이다. 이 단계는 내담자 개인 중심의 활동형태가 선호되고 적용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형태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담당에 있어서 기본적 자질을 키우고, 개인이 가진 특수한 발달결손 및 학습 결손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진단과 학습자 분석이 출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동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이 단계에 과도한 요구, 좌절감 혹은 불안 등에 대한 반응으로 강박적 상호활동양식, 억제, 자기신뢰결여, 불안정을 보이거나 때때로 분노를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개인중심의 활동 형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공작, 입체적 조형활동(예: 석고, 점토, 나무, 가죽 등), 이완놀이(예: 발끝으로 걷기, 무릎으로 기어다니기 등), 자유화, 정체성 찾기 놀이(예: 목소리 알아맞히기), 파트너 놀이, 즉흥적 무대활동, 변장이나 화장, 가게 차리기, 포장활동 등을 제시한다.

셋째 단계는 안정화단계이다. 이 단계는 ‘균형 잡힌’ 자아와 행동을 위한 조건들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단계의 활동들은 앞 단계의 활동과 연결되어야 하며, 미술치료방법이나 기법들도 다양하게 확장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주제 선택에도 자극을 주어서 내담자의 경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역할놀이가 미술활동과 연결되어 사회적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적용된다. 또한 안정화단계의 미술활동은 좀 더 영역을 넓힌다. 프로젝트 활동으로 내담자들도 갤러리나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예술가들이 다룬 주제들, 예를 들어 불안, 사랑, 외로움, 가

86) 상계서

족 등을 감상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집단원들끼리 협동적인 행동양식을 시도해보고, 미적 재료들과 기법들을 적용하여 자기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

넷째 단계는 분화단계이다. 이 단계는 이제까지 배운 능력을 사회적, 사회-문화적 문제제기에 전이될 수 있도록 한다. 즉 내담자들이 이제까지의 시도를 실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도 해당 활동에 관련된 프로젝트 중심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주제 중심의 활동으로 분화된다. 이러한 시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능력, 예를 들어 매체평가, 사회적 책임, 비판적 매체사용 등의 능력을 장기적 기간에 걸쳐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실험적 활동으로는 미적 소재들을 이용한 작업, 예를 들어 만화 제작, 동화제작 등을 통하여 그들의 상호활동과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환경과 관계된 주제인 환경보호, 휴가, 유행, 장난감 만들기, 미래의 부모역할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재료와 정보를 얻는 것도 실제 활동에 유익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비평능력과 고찰능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 문제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예고 없는 교통사고와도 같다. 많은 미술가나 뮤지션들은 삶을 하나의 전쟁터로 묘사하며 그 안에서 싸우는 인간 또는 자신을 묘사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삶에 있어서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승화시킬 무언가를 찾는다. 바로 미술이 그러한 자기표현의 방법들을 제시한다.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내적·외적인 환경변화를 겪으며, 자기와 사회의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사회 현상에 대한 견해, 사고방식 등을 형성하게 된다. 그들은 어느 시기보다도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열려져 있는 활력 있고 역동적인 시기를 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아동도 성인도 아닌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기는 진학, 직업선택 등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부적응 행동을 보일 취약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알맞은 시기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바른 인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 또한 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 공존의 시대로서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비평적 시각을 잃지 않는 합리적인 인간을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고찰에서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환경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되어 일어나며 경쟁, 소외, 일탈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심리·사회적 상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갈등과 의문을 강하게 야기시키게 되며,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특징으로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고, 자기통제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반면,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실패를 추구하는 동기가 높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실제 청소년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는 청소년 전체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내는 청소년들을 포함한다면 모든 청소년에게 중요하며 긴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자아를 찾고 문제에 대한 치유를 하

면서 얻게 되는 가치로 비로소 다른 이에 대한 가치도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의 모든 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과 인간 중심교육의 형태로서 정서적 능력의 발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미술의 기능적이고 치료적인 접근으로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잠재된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이 과정이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의 조장, 독립성의 고취, 유연한 사고의 증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 등 창조적인 정신의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치료적 미술교육은 미술의 동기부여 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고 이러한 자발성은 자아정체감, 자아 효능감, 자기 존중감을 고양시키는 치료적인 효과를 가져와 정상인이나 비정상인을 막론하고 그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한다는 교육적인 입장에 이른다.

따라서 미술치료교육이라는 매우 분명한 단어들의 조합이 개개의 본래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존재할 수 있었다. 치료라는 관점과 교육 및 인격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사용되는 미술은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모든 훌륭한 치료들은 교육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고, 훌륭한 교육 또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미술치료에서 행해지는 방식이 치료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그 환경과 치료의 전체적인 구성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치료적 목적을 가진 미술교육에서도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미성숙한 인격적 특징을 일종의 결손으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미술치료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점차 전인적 성숙을 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치료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그림에 의한 표현 속에는 내적 요구, 충동, 갈등, 적응 등과 같은 심리적인 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격과 숨겨진 마음의 표현, 욕구의 표현, 가족관계·대인관계의 표현, 더 나아가서는 문제행동의 표현까지도 그림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그린 그림 속에 자아개념, 환경에 대한 태도, 감정과 욕구, 흥미의 대상이 무엇이나 하는 것과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서론에서 가정한 것처럼, 이러한 미술 작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신적인 기능과 관련된 학습적인 가치를 갖게 할 수 있고, 표현의 과정이 자기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 진처럼 마음에 담겨진 외상에까지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작용은 카타르시스를 일으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그 외의 여러 형태의 미술작업을

통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안도감을 주는 정화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미술활동은 활기를 띠게 하고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흥미 넘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더 활기차고 즐거워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미술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직관을 갖게 되며 자아실현을 이루고 좀 더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표현방법과 새로운 생각을 탐구하게 된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즐거움과 놀이와 창작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며, 미술활동이 이러한 경험들을 제공하게 된다. 바로, 미술과 치료의 접점에서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미술치료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차원의 위기경험의 평가와 치료적 경험을 하게하고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이차적 징후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까지를 예방하여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미술치료 접근방법이 그러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기 개입이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미술치료적 속성을 유도한 몇 가지 미술교육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신은 심리적 상황과 잠재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케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를 치유하며 문화적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성혜, 『청소년문제행동의 이해』,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0
고숙자 외,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예경, 2003
권두승·조아미, 『청소년 세계의 이해』, 문음사, 1998
신군자, 『새로운 교육사회학』, 집문당, 2001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교육과학사, 2005
이옥형 외, 『교육심리학』, 집문당, 2005
옥금자, 『청소년 임상 미술치료 방법론』, 하나의학사, 2005
전순영 외, 『미술치료개론』, 동아문화사, 2004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한상철, 『청소년학-청소년 이해와 지도』, 학지사, 2004
한국미술치료학회 편,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2000
홍후조,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문음사, 2002

<번역서>

- Barry Cohen, Mary-Michola Barnes, & Anita B. Rankin, 이윤희·주리에
역, 『상처입은 마음의 성형-스물여섯가지 미술치료의 길 *Managing
Traumatic Stress Through Art*』, 도서출판 KATC, 2003
Cathy A. Malchiodi, 최재영·김진연 옮김, 『미술치료』, 조형교육, 2000
Diane Fausek, BA, ADC 저, 이미애·이갑숙 역 『집단미술치료를 위한 실제
적 안내 *A Practical Guide to Art therapy*』, 양서원, 2005
Jean-Louis Ferrier, 김정화 역, 『20세기 미술의 모험』, API, 1993
Linda Whitney Peterson·Milton Edward Hardin, 이종숙·이은경 역, 『마음에
상처를 가진 아이들 *Children in Distress: A Guide for Screening
Children's Art*』, (주)시그마프레스, 2005
Rudolf Steiner/ 김성숙 역, 『교육은 치료다』, 물병자리, 2001
Rudolph Arnheim,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Werner Kraus 편저/ 김미선 역, 『미술에서 치료까지 그림그리기의 치유력』,

학지사, 2005

Wladyslaw Tatarkiewicz/ 손효주 역 『미학의 기본개념사』, 미술문화, 1999

<논문>

- 강민지,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 또래 관계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민경, 「정서순화를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영한, 이명진, 이승현,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 III-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행정제도 환경, 외국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 김성일,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자녀지도의 기본원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김지은, 「다문화주의를 적용한 중등미술교육 프로그램연구 : Getty Museum의 벽화미술과 고구려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향미, 「미술교육에 있어서 미술치료적 관점의 적용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한국미술교육학회, 2005
- 백혜정, 황혜정, 김현희,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 송은일, 「자기표현훈련이 우울수준 감소 및 자기표현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유혜정, 「아동의 그림검사에 나타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인물화검사·나무그림검사·동작성가족화검사분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영옥, 「그림 분석을 통한 정서 부적응아의 심리적 특성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조민엽, 「기운생동 표출을 위한 드로잉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재영,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미술교육의 접근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002

Willson, 미국미술치료학회(AATA)지(1985, 79-88, 129-133)

Abstract

Art Therapy Education as an Alternative for the Adolescent Problem of Today.

Pang, Young ju
Major in Fine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a growth process, the adolescent experiences many kind of internal,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 recognizes relevance between oneself and society and forms personal opinion, a way of thinking about social phenomenon. In a positive point of view, this process is the period that the adolescent is taught to form upright humanity and identity through systematic curriculum. Today is the postmodernism age of cultural coexistence and it needs the education intends them to be a rational person can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each other.

But actually today's adolescent has the problems in various aspect and the factor of problem is compositive composed of personal factor and social factor. Comparing to entire adolescent, the adolescent who are regarded as the social problem is just a few but in this study is also focused on the 'quiet' students. Because the lack of positive and active thought can be also can be regarded as the problem. In this way, for all the young peopl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ego and to cure the problem through education and the value gotten from the process.

This study is to consider cultural and personal problem of the adolescent which they have to feel by themselves and cope with and the cure of trauma on the side of therapeutic art education.

Many researchers state that artistic access develop young people's creativity and this progress contribute to the develop of creative spirit as well

as the intelligent development.

Through this study, we examine cure mechanism and it verify the therapeutic art education boost self-identity and self-esteem. We can reach a conclusion that the therapeutic art education promotes development of whole man. So therapeutic art education, this combination of the words can exist without losing their original goal.

Therapeutic art education can have the educational value about mental function and the process of expression can do a role of self-data and it reaches to the inner trauma. Furthermore this operation raises catharsis that make it possible to clean up the agonizing and painful feelings. Through artistic activity, people learn to solve the problem using creative way and become to get intuition and more get adaptability. Also through artistic activity they become to investigate the new point of view, new expression way and new thought. Doing game, creation and communication is the essential part in the aspect of psychological,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this artistic activity offers this kind of experience. Powerful cure occurs in the point of contact of art and cure.

Through the study above, I present several way of application of the therapeutic art education. Through this, I think the young people can form their identity actively and in this progress they can cure themselves and can be guided to be adapted to cultural environment better.